

가장 '대중적인' 美 목사 조엘 오스틴의 리더십

■ 영국 옹저버지, '미국교회 새 얼굴'로 주목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얼굴은 누구일까? 옹저버지 인터넷판은 최근 '미국 기독교의 새로운 얼굴'이란 제목의 기사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목사임에 틀림없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리더십을 조명했다.

주일 11시경.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처치 2부 예배가 시작되려 한다. 커다란 무대 위에는 록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자리잡고 있다.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그레미상 수상자인 이스라엘 휴튼과 신디 크루즈 레트클리프 등 유명 CCM 아티스트들이다. 무대 아래서는 안내원들이 1만6천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질서 있게 교회 안으로 입장하게끔 돕는다. 이윽고 불이 꺼지고 조엘 오스틴 목사가 스포트라이트 아래 나타난다. 레이크우드처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다. 총 5회의 주일예배에 매주 4만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미국 내에서만 7백만여 명이, 세계적으로는 1백여 국가에서 수천만 명이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다. 교회의 전체 직원 수는 3백 명, 자원봉사자 수는 5천 명이다. 신문은 '메가처치'를 넘어 '올트라처치'로 구분되는 레이크우드처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오스틴 목사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오스

틴 목사 자신이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 이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능력에 주목했다.

오스틴 목사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에 대해 "내가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킬 때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같은 메시지를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긍정의 힘'을 비롯한 책들을 통해,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 때부터 17년간 맡아 온 TV 방송 사역을 통해,



조엘 오스틴 목사 ©Joel Osteen Ministries

그리고 매주 레이크우드처치 강단에서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

"이것은 내 삶 자체며,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오스틴 목사는 밝히고 있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이끌어 오던 모습, 어머니가 신앙을 통해 암으로부터 치유 받는 모습 등을 보아 오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신문은 한편, 출석교인 수 4만여 명의 레이크우드처치를 갈등 없이 이끌어가는 그의 포용력에도 주목했다.

(손현정 기자)

1면에 이어

성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우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부작용을 들 수 있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로 인해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는 경우다. 성차별적인 문화 역시 왜곡된 성인지(性認知)를 낳는다. 사회보호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형량을 무겁게 하는 등 사회적 제도와 법률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예방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는 "성범죄를 진단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이 중요하다"면서 "김길태가 교회 앞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이제 교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범죄만이 아니라 성의식 자체에 큰 변화가 오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교육 자체가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교회 내부에서 올바른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왜곡된 성지식을 전파하는 매체들로부터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나서 성은 하나님께만 잘맞게 사용되면 흥기가 될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작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성을 이중적 잣대로 생각하거나 '무조건 보지 말라'는 방식보다는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건 전하고 오픈된 감의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재 가정문화원을 비롯한 가정사역 단체들은 기독교 관점에서 건전한 성지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성(性)'과 같은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송길원 목사는 "부모들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했을 때 자녀가 가질 심리적 공허와 소외감 등이 사회적 범죄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회는 '치유'의 장소
두상달 장로(가정문화원 대표)는 교회가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적으로 인한 가정파괴는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을 남긴다. 두 장로는 "김길태 같은 경우, 자라면서 성격적으로 수많은 상처와 비뚤어진 영향을 갖고 있었다. 교회가 그러한 아이를 구원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길태는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가족과의 관계조차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혼자 살아갔다. 두 장로는 "성적 욕구에 민감했던 나이 어린 김길태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성적인 공상이었을 것'이라며 '교회가 상처받은 이들을 정서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사명을 다할 때,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美 교인 3분의 2 "이웃 교회에 경쟁의식 느껴"

당신은 이웃 교회에 경쟁의식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미국 교인의 3분의 2 정도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전통적인 교단에 속한 교인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하트포드 신학교 종교연구소가

조사 연구를 담당한 이 학교 데이빗 루즌 종교사회학 교수는 전통적인 교단에 속한 교인들 사이에 경쟁의식이 높은 이유로, 교회들 간의 '동일성(sameness)'이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루즌 교수는 "교인들은 다른 교

전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의 무관심'

최근 발표한 미국 종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전통적 개신교단 교인들 중 42%가 "가까운 교회들과의 경쟁이 새 신자들을 전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복음주의 교인들과 가톨릭·정교회 교인들의 경우 각각 19%와, 13%가 이같이 대답해 상대적으로 경쟁의식을 덜 느끼는 편이었다.

(손현정 기자)

회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다니는 교회만의 특징이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느낄수록 이웃 교회들에 대한 경쟁의식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역에서 총 2,500명의 교인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미국 교회의 동향을 반영한 가장 최근 자료 중 하나다.

(손현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권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권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패밀리 컴맹탈출!

가장 쉽게 배우는 컴퓨터! 망설이면 늦습니다.

컴맹탈출의 네비게이션만 믿으세요!

시판가격 \$220 → 할인가격 \$150

※ CD 한 프로그램만 이수하셔도 6개월분의 학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IT 내공' 을 체크해 보세요
IT내공 측정 20개 문항을 체크해 보세요.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0~2개이면 하수, 3~12개면 중수, 13~16개이면 고수, 17개이상이면 달인으로 분류됩니다.

1. PC를 통한 정보검색과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하다.
2. 이메일을 받고 쓸 수 있다.
3. 온라인 쇼핑몰이나 주식거래를 자주 활용한다.
4. 블로그, 사이트, 카페 등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곤 한다.
5.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할 수 있다.
6. 이메일을 통해 RSS피드를 받아 보고 있다.
7.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8. 휴대전화로 웹검색을 할 수 있다.
9. 휴대기기(스마트폰 등)로 이메일을 확인한다.
10.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
11.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휴대기기에서 사용한다.
12.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본 적이 있다.
13. 휴대전화로 지도, 목적지까지의 경로, 대중교통 정보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14. 스카이프, 구글 보이스 등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5. 와이파이가, 3G, 와이브로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
16. 웹스케줄러나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관리한다.
17.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OS교체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
18. 구글독스나 웨이브 등의 웹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
19. 2-3종 이상의 스마트폰과 e북 등 휴대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20. 휴대전화에 추가해야 할 기능과 서비스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시중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눈높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왕초보의 시각으로 만든 컴맹탈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빨리 갈 수도 늦게 갈 수도 있어서 아주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잘해서 컴맹탈출이 아니라 프로그램 방법대로 따라하면 저절로 컴맹탈출!! 자동차 운전은 처음하실때는 누구든지 긴장하다가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재미있듯이, 컴맹일 때는 컴퓨터가 무섭지요. 어디를 갈 때 네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지만 하면 목적지가 나오듯이 내가 다 기억하고 잘 할려고 하면 나만 힘이 듭니다. 그냥 맡겨주고 따라가면 됩니다.

• 마우스 사용법에서 홈페이지 제작까지 완전 마스터
• CD롬에 넣기만 하면 자동 실행되어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컴맹이 탈출됩니다."
• 이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사람의 눈 높이가 아닌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
• 인터넷 왕초보에서부터 인터넷 박사 과정까지 반드시 배우고 마스터 해야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10가지를 엄선한 것입니다.
• 학원갈 필요도, 교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구입처 1-800-310-1089 자세한 정보는 www.mystanton.com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이병희 목사 초청 연합 부흥성회 가져

유익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사순절을 맞아 남가주 중부교회협의회(대표 이동준 목사)가 18일부터 20일까지 남가주부흥교회와 감사한인교회에서 '사순절 연합 부흥성회'를 가졌다.

강사로는 한국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가 초청됐으며, 이목사는 '심령이 변해야 산다', '고난을 유익으로 삼자', '소원을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19일 오후 7시 30분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고난을 유익으로 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양목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만 바라보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권면했다.

양목사는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의 신

앙도 마찬가지로 지난날의 시련과 풍련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고 때론 고난이 잠든 우리의 신앙을 깨운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린아이가 힘들 때 부모를 찾는 하나님을 찾자.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곤고하다. 하나님을 찾으려 눈물 흘리자"고 전했다.

또한 양목사는 "믿는 이들에

게는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고난이 오기도 한다. 고난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보고 가면 이길 수 있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다보면 간증이 된다. 사순절 주님을 보고 따라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끝으로 양목사는 "부모가 죽은 장례식에서 그 부모의 아들이 싸운 적이 있다. 이유는 재산 분배에 불평이 있어서였다. 세



양병희 목사가 감사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한편 연합부흥성회를 통한 연합과 감동만을 가져다준다. 무금은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와 청소년 센터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자"이다.

고 강조했다. (이태근 기자)

교계와 동포들이 함께한 '2009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 이성우 목사)와 홀리클럽이 주관한 '2009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종합 보고'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30분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는 이성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미주성시화운동대표회장 박희민 목사의 감사의 인사말씀, LA총영사관 강후영 영사의 감사와 소감, 이성우 목사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종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1만포의 쌀을 배부 목표로 정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서는 후원 목표액인 10만 불은 넘는 총 12만 4725불



사랑의 쌀 나눔운동 종합보고에 참여한 관계자들. ©이태근 기자

이 모금됐으며, 한인교계와 한인 사회 등 약 120개의 단체와 교회가 참여해 19지역에 5차례 총 988개의 단체와 교회에 배부됐다.

또한 이날 보고에 따르면, 목표 모금액을 초과한 2만 5천불에 대한 2차 나눔으로 다민족에게 사랑의 컵 라면 1천 6백개 전달, 학

교와 교계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 53명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기금 300불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말을 전한 박희민 목사는 "동참해준 단체와 개인 그리고 교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비록 쌀 한포 나눔이지만 사랑의 섬김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격려가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 나누기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후영 영사는 "나눔 운동 시작했을 때 불안했지만 성공적인 이유로 목회자와 동포들의 협조 때문이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태근 기자)

LA마라톤 대회, 코스 변경 했지만 여전히 주일성수와 충돌

LA마라톤 대회 구간이 변경됐음에도 여전히 주일성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A마라톤 대회는 지난 14년간 대회 개최 요일 변경을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 '원웨이'(One-LA)와 교계 지도자들에 의해 지난해 처음 평일 열린 후 다시 주일로 옮겨졌다.

대회가 주일로 옮겨지면서 한인타운을 가로지르는 코스는 베벌리 블러버드(Beverly Blvd)를 지나가는 코스로 바뀌었고, 그 덕에 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는 교인들은 불편함을 달게 됐다.

하지만 대회 코스 구간에 위치한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당일 예배를 취소하거나 예배 시간을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톤 대회 개최 요일 변경을 위해 힘쓴 송정명 목사는 "대회 코스가 변경되어도 주일성수 침해는 여전히 있다. 주일성수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대회 개최 요일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근 기자)

진유철 목사, 베데스다대학 7대 총장 취임

베데스다신학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가 취임했다. 진 총장의 취임예배는 21일 나성순

복음교회에서 드려졌다. 진 총장은 취임사에서 "부족한 중을 브라질에서 개척하게 하시고 미국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모두가 긍지를 가지는 대학을 만들겠으며 협력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진유철 목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베데스다신학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태근 기자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GST Language Center
갈릴리 신학대학
유학생을 **장학생**으로 초대
가장 **빨리 영어배우실분**
학위전학, 신분변경무로 **학생소개자특전!**
목회자 추천
학비 선착순 파격할인 \$140/월
Power English 무료청강 기회
I-20 자체발행, 석,박사 학위
특별장학금, 별도사례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550.7377** 24시간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임시총회

- ▶ 일시: 2010년 4월 1일(목) 오전10시
- ▶ 장소: 남가주동신교회(손병렬 목사)

이사회 구성에 관한 헌법개정문제와 사역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 ▶ 주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 ▶ 후원: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 ▶ 일시: 2010년 4월 4일(부활주일) 새벽5시30분
- ▶ 장소: 은혜한인교회 새성전(비전센터)



박용덕 목사 한기홍 목사



- 사회: 박용덕 목사(OC교협회장, 남가주빛내리교회)
- 대표기도: 김승욱 목사(수석부회장, 남가주사랑의교회)
- 설교: 한기홍 목사(중경회장, 은혜한인교회)
- 찬양: 연합성가대(지휘 송규식 목사)
- 기도콘서트: 손병렬 목사(부회장, 남가주동신교회)
- 기도인도자: 문현봉 목사(OC목사회 중경회장)
- 민경엽 목사(부회장, 나침반교회)
- 헌금기도: 서문준 집사(부회장,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 축도: 정영수 목사(OC교협 이사장)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법안 서명에 따른 성명서 발표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법안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 의원들과 의료 관련 활동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23일 의료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을 정비하여 유색인종 커뮤니티, 코리안 아메리칸을 비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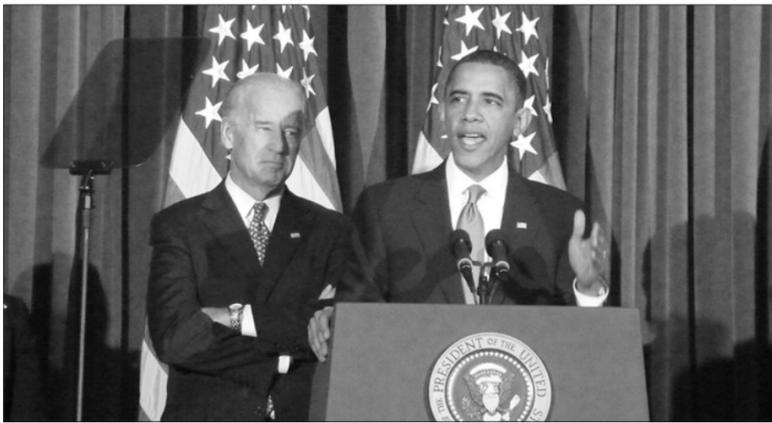
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해 3천 1백만 명 무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며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48%의 코리안 아메리칸 성인은 보험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법안 서명으로 변경되는 점은 ▷소규모 자

기준 133% 안되는 사람들 메디컬 지원 ▷26세까지 피부양인 지역 부유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예산 2015년까지 지원, 이후 연방정부 대응 예산 지원 비율 23% 인상 등이다. 미교협의 이은숙 사무국장

혁은 우선 입법과제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건강 보험 취득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는 이민신분(서류미비 신분 및 영주권 신분), 언어 장벽, 보험 비용, 소규모 자영업장 내 고용 등이 있다. 이 법안은 우리 커뮤니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는 의료개혁을 향한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의료 개혁 법안 내에 포함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통과된 법안이 우리 커뮤니티에 끼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우리는 지난 일요일의 역사적인 의료 개혁 법안 통과를 지렛대로 삼고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커뮤니티를 교육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예산 합의 절차와 수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수많은 무보험자들이 혜택을 받고 적자를 줄일 것을 상원에 촉구할 것이다"며 향후 활동을 간단히 소개했다.

〈이태근 기자〉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 등 건강보험이 없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다 쉽고 공평하게 건강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영업소의 직원 건강보험 구입 시 지원 받기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 보험료 보조 차원의 세금 크레딧 받기 ▷연방빈곤

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무보험률은 52%로 이 나라에서 무보험률이 가장 높은 민족 중 하나이다. 때문에 우리는 의료 개

원수를 사랑으로 섬긴 하워드 목사의 간증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오른쪽)과 그의 친구들.

4월 3일, 4일 마가 교회와 열반인 온누리 교회서 간증 집회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크리스천 5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실종 소식 후 대대적인 수색작업이 벌어졌고, 수색결과 실종자 모두 아우카족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미국 사회가 주목했던 때가 있었다.

실종자들의 실재 소식에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유가족 중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울법이 아닌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갔다. 사순절 기간 원수를 사랑한 이들 간증하는 집회가 4월 3일 오후 7시 마가교회(담임 최동선 전도사)와 4일 오전 11시, 2시 열반인 온누리(담임 박종길 목사)에서 열린다.

간증자는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에게 다가가 5년간 섬긴 엘리자베스의 친동생 데이빗 하워드 목사다. 엘리자베스의 남편 짐 엘리엇의 룸메이트기도 한 하워드 목사는 짐 엘리엇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평생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사순절 기간 사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HOW(Heart of Worship)가 개최한다. 〈이태근 기자〉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 면류관을 드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황규섭 장로, 지휘 이정욱 교수)의 제16회 정기공연이 지난 21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 새 성전에서 열렸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 다리는 주재로 열린 이번 공연에는 약 5백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남가주장로성가단 ©이태근 기자

공연은 명성가, 중창단, 초연창 작사가, 한미경, 임선미, 홍성환창, 은혜의 성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성가단원들은 1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청중들에게 전했다.

단장 황규섭 장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교회 음악 발전에 힘쓰는 작곡가들의 힘이 되고자 3곡의 창작 성가를 준비했다. 빛도 이름도 없이 공연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태근 기자〉

남가주 지역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드린다

남가주 각 지역의 기독교교회 연합회회는 4월 4일 오전 5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부활주일의 맞아 초교파적으로 새벽 연합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이다.

연합예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설교는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가 전한다. 〈지재일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0년 부활절을 맞아 남가주 지역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한다"며 "남가주 각 지역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 참석하여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목회자 위한 리스車' 소셜 없고 크레딧 나빠도 OK

소셜 넘버가 없고 크레딧이 나쁜 한인 목회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다.

대자동차(대포 샘 임)는 최근 중소기업회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차량 특별 리스 및 원가 세일을 단행하고 있다. 이는 목회자 증명서 및

현재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2010년형 뉴소나타 자동차를 제공하는 '패스터 패키지' 상품이다.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 찰

리 정(정영기) 매니저는 "대형교회에 비해 자동차 구입에 불편을 겪는 중소기업회 목회자, 소셜 넘버가 없거나 크레딧이 나쁜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연락처: 213-276-8959

지재일 기자 jaeil@chdaily.com



2010년형 뉴 소나타

2010 HOLY PASSION WEEK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담임 한기홍 목사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주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골로새서 2장 15절)

일시: 3월29일(월)~4월2일(금), 새벽 05시 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비전센터)
강사: 한기홍 목사

2010 HOLY PASSION WEEK

성금요일 음악예배
4월 2일(금) 저녁 8시
베토벤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 / 지휘: 송규식 목사
합창: 은혜성가대, 협연: 은혜오케스트라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비전센터)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 446. 6200

한기홍 목사 방송 설교

주 일	CGN TV Ch18.4	오전 8:30
	Time Warner Ch658	오전 8:30
	JSTV 미국전역 Ch668	오전 10:00
	JSTV 미국(Dishnet)	
수 요 일	뉴욕 CGN TV Ch63.3	오전 11:30
	크리스천에럴드방송 AM 1650	오전 05:30
목	San Diego Radio Seoul FM 98.1	오전 10:00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
	CTS 미국 (Direc TV) 미국전역 Ch2087	오후 8:00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오전 10:00
금 요 일	JSTV 미국전역 Ch668	오후 1:30, 5:30, 9:40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
	CTS 미국 (Direc TV) 미국전역 Ch2087	오전 05:30
토	CTS 한국(금)	오전 5시(한국시간)
	San Diego Radio Seoul FM 98.1	오전 10:00
주 일 예 배	1부 8am 2부 10am	
	3부 12noon	
	4부 2:30pm	
	G W P C	
인 터 넷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www.gracewpc.com Tel: (714) 446-1004 예배 05:30am, 10am, 8pm	
	KCMUSA-INTERNET www.kcmusa.org CTS-한국INTERNET www.cts.tv	

은혜한인교회-INTERNET www.gracemi.com

예수는 콰란공동체와 사해사본의 영향을 받았을까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장영일 박사) 성서학연구원이 주최한 제64회 성서학연구원 심포지엄이 22일 오후 서울 광장동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제임스 찰스워스 교수를 초청해 '사해사본들은 제2성전기의 유대교와 예수의 유대교를 이해함에 있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주제로 열렸다. 제2성전기는 바벨론 포로 시절을 끝내고 유대로 귀환한 B.C. 300년부터 예수 사후 예루살렘이 함락된 A.D. 70년까지를 말한다.

찰스워스 교수는 "예수는 에세네파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정적·공정적 면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며 "사해사본은 예수의 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준다"고 결론 내렸다. 예수가 사해사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이다.

사해사본은 B.C. 2-1세기 사이 콰란공동체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947년 한 목동에 의해 동굴 속에서 발견됐다. 찰스워스 교수는 "콰란 사람들은 의견을 달리하거나 추방된 제사장들이었다"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부적절한 행위를 뜻한다고 판단 내렸고 제사행위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들만이 적절한 제사장들이라는 뜻에서 '아론의 아들들'이라

불렀다"고 전했다. 콰란공동체는 찰스워스 교수에 따르면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는 장소였고, 하나의 종파로 부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 에세네파 사람들도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하나의 '종파'였고, 역사가들은 이들 4천여명이 예수 당시 예루살렘 남서쪽에 살고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찰스워스 교수는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제2성전기 유대교는 획일적이고 다른 문화와 단절된 정통과 유대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A.D. 70년 이전의 유대 사상은 로마와 헬라, 페

르시아와 아라비아, 인도와 이집트에서 발전된 여러 사상과 상징들, 신화들, 개념들에 의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전했다. 또 "사해사본 발견으로 예수 당시 유대교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열심당 등 네 종파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함을 증명했다"며 "우리는 이미 언급한 네 종파에 사마리안들, 세례요한이 인도한 것과 같은 세례 집단, 에녹서에 나오는 에녹 집단, 보에투스안 등 20곳 넘는 집단과 더 작은 집단들로 정의될 수 있음이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나오는 예수의 질문이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멍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예수에게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전승을 역사적으로 예수에게 소급시킬 수 있는가 △예수와 에세네파의 독특한 것을 대비하는 것이 가능한가 △에세네파의 생각이나 개념이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어서 예수가 이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가 등이다.

찰스워스 교수는 "예수가 성서를 읽는 가운데 얻을 수 있었던 것들과 에세네파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에세네파가 공동체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는지, 아니면 에세네파의 습관과 행위, 습사리

예수의 물음에 대해 찰스워스 교수는 "예수는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신실한 유대인이자 집승이 구덩이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둘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며 "그러한 규칙은 구약성서나 랍비 문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거는 사해사본 중 하나인 다마스쿠스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안식일에는 독특한 에세네 전승을 알고 있었는지는 상대적으로 분명치 않지만, 이 전승은 예수를 화나게 만들었을 것이고 사해사본은 이 구절의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찰스워스 교수는 이와 반대로 예수의 말씀 중 일부에서 에세네파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구약과 외경을 포함한 어느 글에도 나

의 엄청난 차이점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예수의 부르심은 즉각적이며 아무런 조건없이 가장 낮은 사회적 울타리를 견지했지만, 에세네파는 입회하려는 사람들에게 신체적·정신적·영적 검사를 했고 모든 소유물들을 공동체 안의 저장 장소에 위탁해야 했다. 또 예수는 여성들, 문둥병자들,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사회에서 내버려지

장신대 성서학연구원 심포지엄서 제임스 찰스워스 교수 강의



찰스워스 교수(오른쪽)가 강의하고 있다. 왼쪽은 통역을 맡은 최재덕 교수. ©이대웅 기자

찰스워스 교수는 "예수는 에세네파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정적·공정적 면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며 "사해사본은 예수의 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준다"고 결론 내렸다. 예수가 사해사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이다.

사해사본은 B.C. 2-1세기 사이 콰란공동체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947년 한 목동에 의해 동굴 속에서 발견됐다. 찰스워스 교수는 "콰란 사람들은 의견을 달리하거나 추방된 제사장들이었다"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부적절한 행위를 뜻한다고 판단 내렸고 제사행위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들만이 적절한 제사장들이라는 뜻에서 '아론의 아들들'이라

관찰될 수 있는 사상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부합한다면 예수는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예수와 에세네파는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장소에서 만났을 수 있고 더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돕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을 선포하시도록 도왔던 신실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나오는 예수의 질문이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멍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아무도 짐승(새끼)을 구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 짐승이 구덩이나 개천에 빠지면 안식일에는 이를 일으키지 말라. 찰스워스 교수는 "유대 규정에서는 사실 상 '일'로 여겨지는 일부 행위들도 병자를 돕는 것이 되던 허용됐다"며 "오직 에세네파만이 안식일에 죽어가는 짐승을 돕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려 한 유일한 집단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짐승의 비명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유대교 율법에 대한 비호감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다"며 "예수가 이런

타지 않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눅 16:8), 에세네파처럼 하나님 나라에 진력하기 위해 독신을 택한 사람들을 찬양하는 구절(마 19:10-12)이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예수가 에세네파의 삶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삶을 인정했음을 가리키는 것 같다"며 "콰란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로 부르며 광야에서 독신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가족과 집을 등진 사람들"이라고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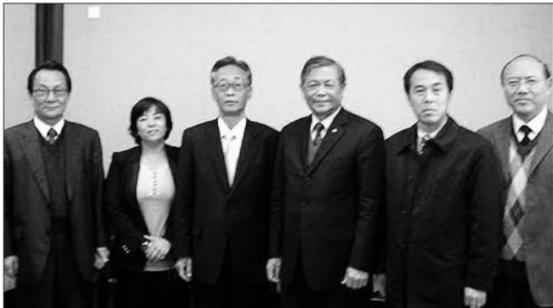
그러나 예수와 에세네파 사이

고 주변으로 밀쳐진 사람들과 함께했지만, 에세네파 사람들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었고 모든 병자들을 멀리했다. 그리고 예수는 '사랑'을 특히 강조했으나, 에세네파 사람들은 '중요'를 제도화했고 어둠의 아들들을 증오하고 저주할 것을 가르쳤다. 찰스워스 교수는 "고고학은 예수가 인간이었을 때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살았고 마지막에는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당시 삶과 관습들에 대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함께 자리한 한국과 중국 교회협의회 관계자들. ©NCKK

한·중 교회협의회, 2011년 5월 중 상해에서



함께 자리한 한국과 중국 교회협의회 관계자들. ©NCK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권오성 총무와 박종화 목사(국제위원회 위원장), 정해선 국장이 지난 3월 15일 중국기독교협의회(CCC)를 방문했다.

CCC에서는 시안웨이 주석, 칸보평 총간사, 오옌민 해외부 국장이 배석해 중국교회의 현황과 선

교적 관심에 대해 설명했고, 앞으로 한·중 교회 사이에 보다 폭넓은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차기 협의회 개최 시기와 논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 교회의 사정으로 2005년 11월(중국 상해에서 가진 협의회)

이후 중단되었던 한·중 협의회를 2011년 5월 중 상해에서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발전과 신학의 역할, △교회와 사회복지, 그리고 △WCC 제10차 총회 협력방안 등 세 가지 주제를 교류와 협력 차원에서 발전시키기로 했

며, 특히 WCC 총회가 한국교회의 총회가 아니라 아시아의 총회가 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하에서 21세기 동아시아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세계교회 속에서 아시아 교회가 무엇을 공헌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한·중교회협의회는 1991년 NCKK 회원 교단 대표들이 중국기독교협의회(CCC)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이대웅 기자)



미주성결교회 창립30주년기념 엘에이 지역 성결인 대회

설교 이정근 목사 (유니온교회담임목사 미주성결대학교 명예총장)
일시 2010년 4월4일 (부활주일) 오후6시
장소 유니온교회 ☎ 전화) 626-858-8300
 -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 이날 모여진 헌금은 아이티 고아원 설립을 위해 쓰여 집니다. ***



[이정근 목사]

- 주 최 : 엘에이지방회, 엘에이동지방회, 남서부지방회
- 대회장 : 김광수 목사 (교단 부총회장)
- 준비위원장 : 김수철 목사 (엘에이지방회장)
- 공동준비위원장 : 유영일 목사 (엘에이동지방회장) 안충기 목사 (남서부지방회장)
- 총무 : 이정석 목사 (엘에이동지방회서기) 626-422-9465
- 사무장 : 김창수 목사 (남서부지방회서기) 714-501-7174

- 엘에이지방회**) 가나안성결교회(최지환) 나성성결교회(정호운) 나성성결교회(최광열) 낮은리선교회(문순기) 돌로스선교회(황의정) 말씀새로운교회(김희창) 소중헌사람들교회(김수철) 사온성결교회(최경환) 엘에이중앙성결교회(윤경필) 우리교회(이상혁) 주 날개교회(조성호) 임마누엘선교회 한빛선교회(송중복) 웨스트엘에이연합선교회(이구연) 목양성결교회(이한노) 가정목양교회(박성민) 뉴송교회(장석천) 바이블리아강변교회(박성용) 벨리사람의교회(이태학) 성문교회(김광수) 안문교회(김영근) 연합선교회(이상복) 남가주은혜교회(최재성) 제일성결교회(신원철) 주님의충신교회(이종길) 하와이한인교회(임병철) 빛과소금교회(홍용표)
- 엘에이동지방회**) 다이아몬드성결교회(진광호) 로고스교회(최춘호)면류관교회(이정석) 방주교회(이중일) 한민응선교회(이영기) 한사랑교회(박명룡) 그레이스성결교회(고남철) 미주새한교회(주신) 에덴선교회(윤석길) 중만교회(김기동) 하와이주천양교회(봉영찬) 한빛성결교회(차광일) 라스베가스천양교회(이은민) 새아름교회(박정인) 언약한인성결교회(이재광) 에덴성결교회(양명선) 주사랑성결교회(유영일) 그레이스임마누엘교회(피터홍) 달라스은혜교회(주홍수) 새언약교회(오일) 미주예목교회(김정국) 풍성한교회(차학주) 뉴멕시코성결교회(최지규) 한교회(박광선) 달라스새빛교회(김남태) 새로운교회(원유공)
- 남서부지방회**) 남가주로고스교회(김우근) 시무스베이선교회(조준근) 산성교회(윤석형) 햇빛교회(김병호) 호놀룰루한인성결교회(이종택) 마주송선교회(황영대) 베다니은혜교회(정예진) 삼광선교회(김덕수) 임마누엘로렐교회(안충기) 사랑성결교회(권다환) 필그림교회(김창수) 유니온교회(이정근) 오렌지중앙교회(이정원) 엘비안연합선교회(신현철) 엘비안제일성결교회(백태현) 티화나유니온교회(민우석) 믿음의교회(안충기) 샌디에고로고스교회(김건오) 샌디에고하나로교회(최진호)



김종일 선교사는 귀국 후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

▶ 21년간 중동 선교한 김종일 선교사의 분석

‘무슬림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운가?’

21년간 중동이슬람권 선교사로 사역해온 김종일 선교사가 2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서울교회(담임 이종윤 목사)에서 열린 제 37회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이슬람권 선교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분석했다.

그가 제시한 첫번째 이유는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김 선교사에 따르면 무슬림들은 예수 이름 앞에 항상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을 붙인다. 이것은 예수를 '또 하나의' 선지자로 추락시켜야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로 부각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선교사의 추측이다. 그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 신성에 대한 부인이 무슬림 선교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됨에는 틀림이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그가 든 것은 십자가 사건 부인이다. 김 선교사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쿠란은 가르치고 있다"며 "기독교의 구원론을 완전히 부인하는 무서운

발언"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은 구원은 믿음을 통한 것이 아닌 구제와 선행을 통한 것이며, 기독교가 예수라는 인간을 신으로 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김 선교사는 설명했다.

김 선교사는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전쟁 역사에서 이슬람권 선교의 어려움을 찾기도 했다. 예루살렘 성지의 탈환을 목적으로 벌어진 전쟁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은 수많은 충돌을 일으켜왔다. 김 선교사는 "

기독교와의 전쟁은 무슬림들의 마음 속에 기독교는 자신들의 적이라는 심각한 적대감을 심어줬다"며 "무슬림에게 있어 기독교인들의 거절과 그들로부터의 상처는 역사 속에서 계속돼 왔다"고 했다.

김 선교사에 의하면 이슬람권에 선교를 위해 들어간 서구 선교사들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자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소수 기독교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수 기독교 민족들은 독립 의지를 불태웠고, 이를 이용하려 했던 서구 제국들이 그들에게 무기를 주면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오스만제국을 비롯한 중동의 무슬림들이었고, 그 결과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김 선교사는 "우리시대의 영적 과정은 무슬림에 의해 교회가 변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무슬림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라며 "믿음으로 조금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며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13억 무슬림들이 사는 이슬람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싱크탱크, '한기총기획단' 출범

한기총과 한국교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할 <한기총 기획단>이 출범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23일 오후 한기총 회의실에서 <한기총 기획단 위촉식>을 갖고 단장 조병호 목사(국제성경통독원 원장)가 추천한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는 정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한기총의 정체성 확립과 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상위위원회 별 사업의 명료화와 사역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한기총의 대교회·대사회 소통을 위한 기획, 그리고 세계교회와의 다양한 네트워크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단 명

단장 조병호 목사 등 교계·학계·언론계 전문위원 위촉

이날 위촉식에서 이광선 목사는 "한기총의 사역에 영성과 지성을 구비하기 위하여 대표회장 직속 직영기관으로 한기총 기획단을 설치했다"며 "기획단의 활동을 통해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병호 목사는 "개인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미력하나마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중책을 맡았다"며 "대표회장을 보필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전심으로 섬길 것"이라 말했다.

기획단은 대표회장이 참여하

단은 아래와 같다.
○ 단 장 : 조병호 목사(국제성경통독원 원장)
○ 부 단 장 : 원종근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전문위원 : 고지한 선교사(Young 2080 상임대표) 권혁률 기자(CBS기독교방송 TV보도부장) 김도일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김영래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민종기 목사(LA총현선교교회) 박명수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소재열 목사(의정부평안교회) 이영철 목사(한국세계선교협회 총무) 이인성 기자(극동방송부장)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담임) 등이다. <류재광 기자>

'회복', 이스라엘 현지 시사회 '감동의 물결'

간느 다큐멘터리영화 부문 출품... 부활절계 20만 돌파 예상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이 이스라엘을 울리고 있다.

영화 <회복>의 주제와 배경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현지에서 최근 첫 시사회가 이스라엘 목사와 세계 각지에서 온 선교사, 기독교인 등 약 2백여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예수가 승천한 감람산 기슭 '속갓 할렐'에서 열린 시사회에 참석한 메시아니즘 목사들은 한결같이 "외국인이 만든 영화가 이스라엘의 처지와 상황을 어떻게 이리도 잘 설명해주고 있느냐"며 놀라워했다.

현지 관람객들은 영화 관람 이후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회복>의 이스라엘 상영을 계기로 전 세계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하루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사회가 열린 예루살렘 남서쪽 속갓 할렐은 창문너머 예루살렘의 성이 한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곳에선 이스라엘을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 기도자들이 24시간 기도를



영화 <회복>의 이스라엘 첫 시사회에 모인 메시아니즘 목사, 선교사, 기독교인들의 모습. ©에이엠지글로벌

멈추지 않는 곳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폭탄테러 사건을 당했던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는 "테러 용의자가 2년 넘게 잡히지 않다가 한국의 촬영팀이 이스라엘에서 폭탄 테러 사건을 취재한 이후 2주만에 체포되었다"며 "나는 우리가족을 몰살시키려 했던 범인을 용서한다. 나는 단지 그가 예수를 믿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영화 관람을 함께한 하워드 베스 목사는 5년 전 브엘세바 교회에 3백여 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난입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방 법원이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의 지방에선 메시아니즘을 향한 핍박이 여전하다고 했다.

이스라엘에서 열린 이번 시사회를 계기로 <회복>의 소문은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전역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는 5월 열리는 모나코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이며, 칸느영화제 다큐멘터리 영화와 신인감독 부문에 출품해놓은 상황이다.

또 지난 1월 14일 개봉한 <회복>은 전국 64개 극장으로 확대 개봉돼, 18일 현재 9만 3천 766명(영화진흥위원회 집계)의 관객을 기록, 현재 추세라면 이달 내에 1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부활절(4월 4일)을 앞두고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단체, 학교들의 단체관람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내달 초에는 20만명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종교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새로

운 기록이다.

한편 일본계 미국인인자, 유대인인 피터추카히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룬 <하나님의 쓰나미>가 출간된 일도 일변인, 미국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같은 주제의 <회복>에 대한 개봉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회복>의 제작사 이임주 대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하면 아랍권과의 싸움만을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과의 뿌리깊은 갈등을 알게 돼 놀라곤 한다"며 "한국이 왜 이스라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하는지도 정확한 해석을 내리고 있어 기독교인은 물론 중동문제에 관심있는 일반인들까지도 봐야 하는 가치있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HAPPYDAY CONFERENCE 2010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폭발적인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는 8주간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한국에서 2,300개 교회의 적용을 통해 **평균 40% 이상의 출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미주 지역과 캐나다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500명을 선착순으로 등록 받습니다.

※ 2009년 가을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새신자 등록 현황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 피 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 피 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 피 데이 새신자 등록
순천성광교회(김동운목사)	1100명	600명	대구원대교회(김우혁목사)	330명	130명	하나인교회(이태영목사)	450명	200명
제자들교회(김경회목사)	120명	85명	대구선교교회(정성은목사)	50명	133명	산정현교회(김형권목사)	200명	100명
부천벨렐교회(오정호목사)	50명	52명	예향침례교회(이기영목사)	140명	79명	주님의교회(전영미목사)	18명	29명
부평교회(최원국목사)	200명	115명	부천빛교회(오길용목사)	100명	80명	순복음열방교회(최동열목사)	50명	70명

더 늦기 전에 **해피데이 전도를 준비하십시오.**
해피데이 전도는 불신자 전도와 교회 부흥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서두르세요!

강사: 김한욱 목사(새안양교회 담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일시: 2010년 6월7일(월) 오후1시~9일(수) 오후5시까지
 장소: 나성한인교회(담임 김영진 목사, 교회주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대상: 담임목사 및 성도(1교회 2명 이상, 담임 목회자는 필히 참석)
 등록: 1인 \$250(4월15일까지), 1인 \$270(4월16일~5월5일까지), 1인 \$300(5월6일부터)
 교재, 중식 및 간식제공, 숙박 별도

환불규정: 5일전까지 10% 차감, 하루 전까지 20% 차감, 당일부터 30% 행정수수료 차감
 등록방법: **둘로스교회 홈페이지(www.douloschurch.com)** 게시판에 신청 후 체크를 보내고 전화 주세요.
 Pay to the order of : Doulos Community Church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문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담당자 둘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전화 310. 951. 3153 팩스 310. 214. 1150 이메일 jlsbc@hanmail.net
 ※ 선착순 등록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종윤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열려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20일(토) 오전 11시부터 베다니감리교회(담임 남궁전 목사)에서 진행됐다. 한국군선교연합회 미주지회 총회 참석자 애틀랜타를 찾은 이종윤 목사는 뻘뻘한 일정보도 불구하고 애틀랜타 지역 목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나온 목회 경험을 간증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가는 목회방향을 조언하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제목으로 특강을 전했다.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한국 군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영상물이 상영됐으며, 베다니감리교회에서 찬송을 제공했다. 이종윤 목사는 "할렐루야교

회를 개척할 당시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고 다른 목회는 거의 하지 못하고, 수요일과 주일 설교만 했는데도 매달 100명씩 성도들이 늘어나는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다 미국에 한 달 가량 방문했는데 돌아가보니 100명이 줄었다. 이를 회복하려고 연 말까지 부지런히 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야 부흥의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니 다름 아닌 '설교'였다. 이후 총현교회 부임했는데 당시 교회가 건축이 지지부진하며 무척 어려울 때였다. 부임하고 얼마 안돼 '홍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교인 총동원 새벽기도회를 열었고 50일 지나고 그 엄청난 빛이 4/5를 갹았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작전' 새

벽기도회를 연이어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다"라고 서두를 댔다. 이어 그는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1991년 개척한 서울교회에서 열고 있는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소개하며 '3PR'을 강조했다. '3PR'이란 'Prayer' 'Preaching' 'Program'으로 이를 통해 정확한 선교비전을 세우고, 교육목표를 설정하면 교회는 성장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주제로 펼친 세미나에서 이종윤 목사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설명하며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현희 기자>

목사회-사모회, 서로 돕고 기도합시다

3월 월례회서 사모회 성금 전달하고 격려

애틀랜타한인목사회(회장 백신호 목사) 3월 정기월례회가 안디옥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렸다. 분주한 3월 목회 현장 가운데 잠시 목회의 짐을 내려 놓고 모인 이날 월례회에는 김세희 원로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세희 목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되게 하소서'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하세요.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고 살다 보니 내가 늙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할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가 됐어요. 건강하려면 외식을 줄여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목



말씀을 전한 김세희 목사

사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도 '십자가'였고, 평생 붙잡으려고 노력한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받는 것도 기뻐해야 합

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어 합시다. 한국사람들은 성격상 참 분쟁이 많습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유언기도, 제자들에게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요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길 바랍니다." 사회를 본 최준찬 목사는 "김세희 목사님은 이곳에서도 교회가 분쟁하고 갈라질 때마다 직접 찾아가셔서 설득하고 화합하도록 애쓰시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평화의집을 운영하며 기도가 필요할 때 올라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 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소개했다. <박현희 기자>

주님 수난 묵상하는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있나?

사순절 맞아 '영성, 사회봉사, 선교'에 힘 쏟는 교회들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마지막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는 한인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의 영성, 사회봉사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들 비특해 일일집회, 동전모으기 등 특별한 행사를 기획, 아이티 지진피해를 돕는 교회들도 있다. 먼저 개인영성에 초점을 맞춘 교회로는 지난 22일부터 3일까지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가 있다.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과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 성경통독을 진행하며 교인들의 심도있는 성경이해를 돕고 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전교인이 참여해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 성경찬필쓰기 운동도 활발하다.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 베다니감리교회(담임 남궁

전 목사)에서 진행되는 이 필사성경은 가족간 둘러앉아 성경을 쓰는 시간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주고 있다. 슈가로프한인교회(담임 최봉수 목사)는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일과 오는 27일 오전 7시30분에 모여 '전도를 위한 기도 걷기 운동'을 기획해 각 가정에 전도지를 전달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기 등의 열의를 쏟고 있다. <권나라 기자>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뀐다

워싱턴 크리스천 상담 교육원 세미나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성황리에 마쳐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진실'이 통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빛지구촌교회(담임 장세규 목사)에서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워싱턴 크리스천 상담 교육원에서 주최한 이 세

미나에는 두 돌이 채 안된 아이를 둔 새내기 부모부터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둔 학부모, 이미 자녀들을 멀리 대학에 떠나 보낸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약 70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성호 목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김 목사는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세상은 성공, 1등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지길 원하시고, 아이들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또한 그는 방황할 때 자신을 붙잡았던 것은 어머니가 '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하시며 매일 매일 그를 위해 했던 기도였다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참가자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현주 전도사는 '가정과 청소년 정신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이 전도사는 청소년기는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아직 미성숙해 있는 상태라 아이들이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이 힘들며, 행동 자체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이 독특하고도 귀한 존재로서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도와주며, 성숙한 자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생활에서 겪는 예들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9학년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결론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자녀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자신이 더욱 공부하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헬렌 기자>

조후연 박사가 인도하는

건강과 치료 大수양회

이곳에 오시면

- 1 은혜가 풍성해지고
- 2 잘 먹고(영양소 골고루)
- 3 열심히 운동하고(실내, 실외)
- 4 푹 쉬고(안식, 온천요법)
- 5 뜨겁게 사랑한다(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 1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 2 기적을 체험하고
- 3 건강이 회복되고
- 4 활력이 넘치고
- 5 하늘을 나는 듯한 체험을 한다



강사:조후연 목사/박사
자연치유 의학박사(명박)
목회학/목회신학박사
오아시스 치료 선교회 회장
아기천사 후원회 대표
크리스천의 바른 먹거리 저자

특별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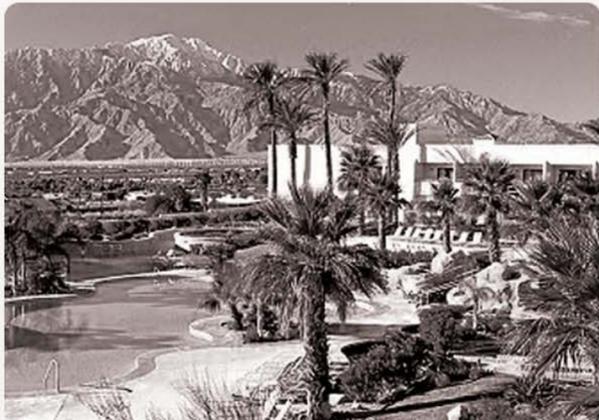
- DNA 파동검사를 무료!
- (검사비 기본이 200\$)
- 크리스천의 바른 먹거리 저자 싸인 기증
- 특허 또는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제공, 영양제, 다이어트
- 개인별 식이요법
- 라이드 하신분 2회 무료 온천
- 온천사랑 건강 동호회 가입
- 도네이션, 기부금 세금 공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것이다

믿음·소망·사랑
건강·풍요·선교

☞ 조박사의 전인건강과 전인치유 5대 원리는 영적이고 과학적이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건강에 관심있으시면 참석하십시오.

일 시 : 2010년 4월11일(주일) 오후4시~4월15일(목요일) 오후2시 (4박5일)
장 소 : 팜스 온천장(Desert palm spa Motel)
67485 Hacienda Ave, Desert Hot Springs CA 92240 (760-329-4443)
※가는길 : L.A에서 10번 동쪽으로 약 90~100마일 ▶ palm Dr로 나가 좌회전 ▶ Hacienda에서 우회전
회 비 : 4인실 \$470, 2인실 \$550
준비물 : 성경, 찬송, 필기도구, 수영복, 운동복, 세면도구
참가자 : 30명 선착순, 회비 접수순



DNA 파동 검사

머리털 1-3개로 인체 모두의 건강과 질병상태 그리고 마음까지 검사하는 최첨단 과학기법이다. 기계는 거짓말도 못하고 요령도 피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알려준다. 또 자연치유법을 제공해준다. 등록자는 무료로 검사받을수 있다.

비영리 법인 오아시스 치료 선교회
The Oasis Healing Mission

213 W. Providencia Ave, Burbank CA 91502
818. 815. 9627 818. 926. 4642

송금: The Oasis Healing Mission
주소: 옆 주소로 기입하세요.
※은행 Check로 송금해 주시는 순서대로 접수가 됩니다.

사회학에서 본 한인교회의 미래 “밝지만은 않다”

한인교회의 미래는 밝은가, 어두운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생존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란 질문이다. 여전히 한인들이 이민을 오고 있으며 한인들의 신앙적, 민족적 특성상 백인교회나 흑인교회, 범아시아교회에 흡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생존할 것이다. 2세들이 교회를 계속해 줄 것이다 등 한인교회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김광정 박사는 사회학적 관

년 아시아에게 이민이 개방된 후의 대규모 이민을 말한다. 김 박사는 먼저 20세기 초의 이민과 교회에 관해 설명했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의 짧은 기간은 한인 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1900년대 초반 전세계 33개국으로부터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한인인 고작 7200명이었다. 중국이 48만명, 일본이 18만명인데 비해 상당히 적다.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계

한인들을 위해서는 교회 건물을 지어 주고 목회자 사레비까지 부담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목회자와 교회는 친농장주적인 성격을 띠면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데에는 무능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인들이 낮은 임금과 혹독한 처우로 인해 파업을 일으킬 때마다 한인교회가 나서서 파업을 꾀는 역할을 했다. 김 박사는 “파업이 발생할 때 한인들은



CSKC가 개최한 제19차 월례포럼에는 한인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신학생,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 CSKC 제19차 월례포럼에서 한인교회 미래 전망

점에서 이 문제를 조명했다.

김 박사는 1969년부터 웨스턴일리노이대에서 교수 활동을 하며 이민자와 미국사회, 이민자 2세의 미래 등에 관해 다양한 연구를 해 왔다. 지난 18일 한국기독교연구원 주최로 신 김 박사는 한인들의 이민이 폭발적으로 이뤄진 20세기 초반과 20세기 후반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한인교회의 미래를 전망했다. 20세기 초의 이민은 사탕수수 노동자 이민이고 20세기 후반의 이민은 1965

신교가 전래된 1885년부터 20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한인 이민자의 대다수가 개신교인이었다. 이들은 짧은 기독교 역사로 인해 한국적 기독교보다는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 준 기독교 신앙의 원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이들은 담임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설립해 신앙 생활을 할 정도로 열심이 있었고 당시 농장주들은 노동자의 노동생산성과 효율성, 농장에 대한 헌신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회를 이용했다. 특히

오히려 노동을 자처하면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조국을 식민화한 일본에 대한 분노를 삭힌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시 한인교회는 조국의 독립에 큰 관심을 갖고 기도와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민족적 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자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했고 일본 영사관은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쁜 한인교회를 감시 대상으로 제외시킬 정도가 됐다고 한다. 여기서 주

목할 사실은 1903년부터 1905년까지의 대규모 이민 이후, 1세들은 세상을 떠났고 교회에서도 사라져 버렸으며 리더십이 자연히 2세로 넘어 갔지만 한인교회를 지키는 2세는 소수였고 많은 한인교회들이 문을 닫고 만 사실이다. 1965년 이후 한인들이 다시 이민을 오면서 하와이 한인교회는 결국 생존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1세들이 지켜 온 하와이 한인교회와는 전혀 다른 한국

식 한인교회의 재탄생이었다. 현재의 한인교회는 어떤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미주 한인 인구의 3분의 2가 7-80년대에 이민 온 사람들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민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 들었다. 한인 1세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오늘날의 현상을 하와이 한인교회에 오버랩시켜 보면 현 한인교회의 미래도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의 2세들은 어떤가? 김 박사는

“2세들은 부모들의 신앙과 삶이 이 중적이며 너무 한국적 신앙 스타일을 고수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인교회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유럽 이민자들은 세대를 거듭하면 백인교회에 흡수되고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흑인교회에 흡수되듯 2세 한인들은 범아시아인으로 구성된 미국적 다민족 교회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기자>

노들담대학교 아이린 박 교수 연구 보고

어느날 갑자기, 한창 공부만 해야 할 것 같은 당신의 중학생 딸이 “나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갈래”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당신이 “어디 부모 앞에서 말대꾸야”라고 했을 때 그 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녀는 몇이나 될까?

많은 한인 이민가정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부모와 자녀” 때문에 고민이다. 두 그룹 모두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몸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점에서 분명 비슷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는 세대차 뿐만 아니라 넘어서기 힘든 문화 차이까지 엄연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백인 부모는 백인 자녀의 반항을 대할 때, 자신이 고등학생 때 겪었던 동일한 문제를 기억하며 그 반항의 원인을 대략 유추라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한국인 부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직



이번 연구를 함께 한 Culture & Family Processes Lab의 멤버들이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발표회를 열었다. 시카고를 방문한 메이 김 양(노들담대 박사 과정), 아이린 박 교수(노들담대 교수), 크리스타 슬라이만 양(학부생)

면한 고민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적 문화 속에서 살아 온 부모의 한국적 행동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갈등이 대부분의 한인 가정에서 존재하며 가족 구성원 간에 상처와 아픔을 야기시킨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많은

한인가정과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의외로 답도 간단하다는 사실을 아이린 박 교수가 밝혀냈다. 노들담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박 교수의 연구팀은 2006년 가을부터 2009년 초까지 미중서부 지역의 15개 한인교회와 4개 학교에서 166명의 청소년들과 96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Enculturation과 Acculturation이란 개념으로 풀어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그룹은 11세에서 15세까지였으며, 남성은 90명, 여성은 76명이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삶의 83.6%를 미국에서 살았으며 119명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47명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부모 그룹

두 문화가 접촉되며 이것이 새로운 문화 형식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은 Enculturation이며 이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며 미국 문화를 배우는 것도 Enculturation이다. 그러나 이 두 문화 속에서 문화적으로

국 문화를 습득하더라도 자라면서 금세 그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등의 설문에서 확인됐다. 처음 시작이 부모나 자녀나 모두 한국문화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우울, 불안, 공격성, 일탈 자녀의 원인은...가정

은 37세부터 55세까지였으며 남성이 19명, 여성이 77명이었다. 그들은 인생의 35.4%를 미국에서 살았으며 94명이 한국에서 1명은 일본, 1명은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Enculturation과 Acculturation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다. Enculturation은 문화화(文化化)로 번역되며 말 그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의 문화에 적응하며 문화를 익혀 가는 것이다. 반면, Acculturation은 문화적변(文化變遷)이라 번역되며 서로 다른

적응하는 과정을 가고 있다면 이것은 Acculturation이다.

박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2년 반동안 조사하며 재확인한 사실은 Enculturation과 Acculturation의 격차가 이민가정의 갈등 문제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Enculturation을 볼 때, 부모들은 한국에서 익힌 한국적 문화를 보다 오랫동안 간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들은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부모로부터 얻은 한국 문화를 빨리 잃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한

상호 적응시켜 가는 과정인 Acculturation에 있어서는 부모는 천천히 적응하는 반면, 자녀들은 빠른 속도로 적응한다. 이것은 부모의 영어 구사 능력과 자녀의 영어 구사 능력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양자간의 상호의존성과 결핍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사실에 대한 대화와 감정적인 대화를 모두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주택 차압/퇴거 중단

용자 조정 (후불)

- 세컨홀 및 상업용 건물도 가능
- 2차 용자 금액 삭감 (18만불에서 16만불 탕감받았음)
- 다른 곳에서 실패하신 분 환영
- Option Arm 가진 분들, 30년 고정으로 바꿔드립니다

- NOD, NOT 받으신 분
- 용자 조정, 숯세일 실패해서 차압 당하게 된 분
- 차압 (Foreclosure)이 이미 끝나고 Eviction (퇴거 명령) 기다리는 분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NO...NO Short Sale : 저희는 숯세일을 절대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Paul Lee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213.248.9297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3월 29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회로로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턴)

기독일보와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후원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합석회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그레이스마운트교회
 담임: 김기환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3550 W. 6th St, LA, CA 90020
 T. (213) 448-9999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중등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2부예배 오전 9:30 한국학교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뮤직아카데미 -
 4부(청년) 오후 1:30 오후 1: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30 중/고 예배 오전 11:00
 2부 영아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F. (310) 719-2229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8:30 5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ic.org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타운 4가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주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경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심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아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00 (토) 오전 7:00
 셀모임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0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충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5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승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찬양기도회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종보기도 오후 1: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중앙아시아선교회
 대표: 정기철 장로
 CENTRAL ASIA MISSION
 1878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65
 T. (626) 533-5300 / F. (626) 912-7453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아)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9시, 정오 12시 수요일예배 오후 7:45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하나로교회
 담임: 박문환 목사
 1부예배 오전 8:40 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4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2:0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 (909) 464-9210 / F. (909) 548-4536

한인어린이회
 회장: 테레사 임 목사
 (어린이 선교회)
 비영리 법인주 연방정부 IRS
 T. (213) 380-1112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14555 Valley View Ave, Suite C,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워십서트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Coffee Break Small Groups
 대표: 백은실 집사
 www.coffeebreakkorea.org
 coffeebreakgrace@hotmail.com
 8208 Pappertree Ln., Cypress, CA 90630
 T. (714) 995-4461 / F. (714) 974-3017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의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안인권 칼럼



안인권 목사
새소망교회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인 MIT대학의 존 마에다 교수는 자신의 저서 <단순함의 법칙>에서 디지털 시대의 성공 키워드로 '단순함'을 들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상품의 기능을 소비자에게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이 단순화라고 역설합니다. 또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

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단 한 줄로 적고 있습니다. 'Less is more!' 조금 모자란 듯이 비워둔 여백,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에다 교수가 주장하는 단순함은 극단적인 단순함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군더더기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에서도 단순함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례를 볼 때, 자신이 설립했던 회사 애플에서 쫓겨나 유랑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망해가던 애플을 기적처럼 회생시킨 그의 화두는 단 하나, '우아한 단순함'이었습니다. 애플사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그의 회심작 아이팟이 바로 이 '우아한 단순함'을 테마로 디자인된 상품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혜성처럼 나타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대 난파선(GE)을 살려낸 잭 웰치의 처방

도 단 한 줄이었습니다. "1등, 2등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 전쟁이나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핵심,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몽골 부족을 통일한 칭기즈칸이 세계 정복에 나섰다 때 몽골의 인구는 200만 남짓,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최대 13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병력으로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칭기즈칸이 싸움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칭기즈칸은 당시 싸움의 핵심을 기동력으로 보았습니다. 칭기즈칸이 평소 가장 소중히 여기던 교훈도 유목민족이 살아가야 할 지점인 기동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이

는 몽골족의 일파인 돌궐족의 명장이자 제상이었던 퉁유쿠크의 가르침으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퉁유쿠크의 무덤에 묘비명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가장 애송하던 문구였습니다.

기동력이 2배 빠르면 전력은 몇 배로 증가될까? 속도가 2배 빠르면 전투력은 2제곱인 4배, 3배

단순함의 법칙

가 빠르면 전력은 9배 늘어납니다. 몽골군대는 말에다 흰 음식과 붉은 음식을 두 덩어리 싣고 반달 칼을 차고 어깨에 활탄 매면 며칠 동안 말에서 내리지 않고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붉은 음식이란 말린 고기이며 흰 음식이란 말뚝을 가공한 요구르트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이들과 맞서 싸우는 군대는 전투원보다 보급 부대원의 숫

자가 더 많은 느려터진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칭기즈칸의 군사들은 말이 달리는 속도로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칭기즈칸이 성을 쌓고 안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타일렀지만 후손들은 화려한 궁궐을 짓고 그 안을 금은보화와 미녀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목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100년을 채

우지 못하고 다시 북방 초원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뒤뚱거리는 기업들은 모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81년, 20세기 경영의 황제로 불리는 잭 웰치가 GE의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GE는 무려 250여 가지 사업 분야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70억 달러, 순익은 18억 달러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상

황이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보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그 동안 GE가 독점해 왔던 분야들 대부분이 경쟁사들에 의해 잠식되어 갔으며, 거대한 관료조직은 엄청난 관리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조직으로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며 위기를 직감한 잭 웰치는 워크아웃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결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수많은 결가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무가 곧게 자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가지를 치자고 결심한 그는 시장에서 1등, 2등인 사업 분야를 빼고는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흑독한 워크아웃을 거친 이후 1998년 GE의 실적은 잭 웰치가 취임한지 17년 만에 매출은 14배, 순익은 5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성을 쌓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하며 스피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현순호 칼럼



현순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종파를 초월해서 애도의 물결이 한국만 아니라 세계로 번졌다.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분하는 세상을 향해 무소유를 강조

하고 그 자신이 무명옷 한 벌에 밥그릇 몇 개 수저 한 벌로 사셨기에 더욱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장례식을 하지 말고 입은 옷 그대로 관도 없이 대나무 위에 놓고 다비하라는 유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셨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무소유'는 소유욕에서 탈피하여 모든 만물이 같이 조화를 이루자는 주장으로 180쇄나 찍어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욕에 끌려 살고 있다. 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자기 입으로 집어넣는다. 그리고 일생동안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라도 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기 위해 이리 저리 뛰다. 소유욕은 끝이 없다.

마치 양 99마리를 가진 부자가 그 앞집의 가난한 노부부가

한 마리 양을 친 자신처럼 키우는 것을 알고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100마리를 채우는 것이 나와 나 인간의 소유 본능이다. 그런 인간의 욕심을 신랄하게 지적한 분이 스님이였다.

서울 성북구에 대원각이라

는 큰 요정이 있었다. 7천 평에 이르는 대지에 40동의 건물을 가진 주인 김영한 할머니는 그 엄청난 재산을 법정 스님께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스님은 한 마디로 사양했다. 10년을 종랐으나 계속 사양하자 그 재산을 조계종 송광사에 기증하고 결국은 훈원원 길상사가 되었다. 길상사가 준공되는 1997년 12월 14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저는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수행과 교화는 호화스럽고 흥청거림 속에서는 결코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풍

요 속에서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라는 메시지는 소유욕에 미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리였다.

기독교의 원조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하셨다. 한국이나 세계의 종교는 교세가 확장 될 때에 재산이 전문학적인

로 증식되었다. 한국의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는 절이나 기도원이 꼭 있다. 종교가 민생을 구원 한다는 핑계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여기에 귀족화되고 또한 종교의 타락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무소유자로 살수는 없다. 시집 장가가고 애들도 낳아서 공부시키고 세금도 내고 등등 사회생활에 돈은 좋은 매개체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다 (돈을 소유의 대표로 한다) 즉 돈이 우상이 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극이다. 물론 소유욕에는 물질만이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 또 다른 욕심

도 포함된다. 묘한 것은 인간에게는 소유욕과 무소유욕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창조욕이 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득을 보고 행복해진다면 그 자체가 자신의 행복인 것이다. 본인

소유냐 창조냐 ('무소유'의 법정 스님 이후)

<지난호에 이어>
.....
그리고 정치력활성화와 관련하여 (3) "형제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4) "명령에서 떠나

경제력을 투입하지 말 것이며, (2) 특정계층의 사적인 부의 축제를 금지해야 함을 강국원리로 교환한 것입니다. 동시에 정치력활성화를 이루

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력강화와 정치력활성화를 위한 강국원리를 확립,수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

다. 즉 하나님 여호와와 영력(영성의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영력을 받고 간직하는 길은 언제나 여호와와 말씀과 친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항상 가깝게 하여 하나님의 영력을 받고 그 영력을 바탕으로 (1)과 (2)를 통한 경제력강화와 (3)과 (4)를 통한 정치력활

성화를 형성 및 유지해 나아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않고 강국으로 지배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국가로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강국원리를 다시금 실행해 나아가게 될 것 같으면 요즈음 회자되고 있고, 우려되고 있는 미국 쇠퇴론은 오히려 경각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백순칼럼



백순 장로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미국 쇠퇴론과 하나님의 강국원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등을 교환하였습니다. 경제력강화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1) 군사에 너무

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3) 정권교만을 버리고 섬김정치를 해야 하며, (4)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정도의 정치를 해야 함을 가

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

Large advertisement for a church service featuring a background image of a cemetery with crosses and lilies. The text includes a quote: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에게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에게로 말미암는도다". It lists two churches: 총만교회 (담임목사: 김기동) and 총현선교교회 (담임목사: 민종기), with their addresses, phone numbers, and service times.

정인량 칼럼



정인량 목사
워싱턴영광장로교회

닉 부이치치는 1982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선천적으로 '테트라-아멜리아병'을 지니고 있었기에 팔 다리가 없는 기형아였던 것이다. 그들의 부모조차 기겁하여 몇 달 동

안 대면하려고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와 같은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오체불만족의 오도다케 히로다테의 어머니가 '아이구 귀여운 내 새끼!'라고 첫 탄성을 질렀다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 반응이었던 것이다.

닉 부이치치는 비교적 8살이란 늦은 나이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몇 번의 자살시도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실패하였다. 그가 중증 장애를 극복한데는 그의 부모와 형제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청소년기 좌절하던 그에게 "니,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한결같은 애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장애인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보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도록 강하게 키웠으며,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 후 호주 그리피스대에서 회계학과 재무학을 전공 졸업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영리

무개차를 타고 지나면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이 많은데 가까이 와서 팔다리가 없는 것을 보면 천리만리 달아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농담을 아끼지 않는 그는 인생 대반전을 이룬 행복전도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사(人間事)에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어 왔다.

인생 대반전

단체 '사지 없는 삶(Life without Limbs)'을 만들고 4개 대륙 12개국 이상을 다니며 회담을 전하고 있다. 그는 수영과 골프, 농구를 즐기고 출납기도 한다니, 사지가 멀쩡한 체 무위도식하는 인생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살생긴 얼굴로

모차르트가 다시 살아온 것 같다는 찬사를 들었던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은 1차 대전에 참전했다 부상당해 오른손을 잘라내야 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그의 생은 끝났던 것이다. 그는 10여 년 동안 방황했지만 운명에 굴복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작곡

가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위해서 왼손만으로 칠 수 있는 피아노곡을 작곡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청에 응해 왼손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곡을 작곡해준 이는 저 유명한 '모리스 라벨'이었다.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가 바로 그 곡이다. 이 연주가 성공하자 그 이후로 많은 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왼손만을 위한 곡들을 만들어주었고 두 손이 다 있는 연주자들도 왼손만으로 그 곡들을 연주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게끔 됐던 것이다. 한 손만으로 연주하는 피아노곡이 무려 1천곡이나 된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또한 피아니스트 리온 플라이셔는 여덟 살 때 연주회를 가졌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다. 열여섯 살의 나이에 뉴욕 필과 협연했고 열일곱 살

때 카네기 홀에서 독주회를 가졌을 정도로 앞날이 창창했던 그에게 30대 초반에 짙은 구름이 드리워졌는데 오른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결국 서른여섯 살에 음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도 비트겐슈타인처럼 오른손의 장애를 극복하고 지휘자로 컴백했을 뿐 아니라 피아노 교수로 활동했다. 그리고 발전된 의학의 도움을 받아 1995년에는 드디어 오른손으로도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낸 음반이 <두 손 Two Hands>이란 제목의 음반이다.

닉 부이치치나 파울 비트겐슈타인, 리온 플라이셔는 장애를 극복하고 인생반전을 이룬 자들인데 동시에 육체의 장애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소망의 전도사들이다.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영국에 프랜시스 베이컨(Bacon)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경험주의 철학자요, 정치가요, 과학자요, 변호사요, 법학자요, 그리고 작가였습니다. 일인 몇 역할을 했는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곤충으로 비유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거미형의 사람과 개미형의 사람과 꿀벌형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미형의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미는 일도 안하고(거미줄은 치지만) 잠만 자다가 남의 피를 빨

아먹는다고 합니다. 소위 '막가과' 식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사람으로 고쳐도 될 듯합니다. 개미는 부지런하고 단결심도 강합니다. 개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잘 똥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개미떼가 나타나면, 땀

는 바른 인간은 아닙니다.

베이컨은 꿀벌형의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꿀벌은 조직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합니다. 열심히 꿀을 만들어 자기들도 먹지만, 대부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동안에 꽃가루를 옮겨 열매나 씨를 맺게 합니다. 꿀벌의 삶은 다른 생명체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이런 사람들 '이타주의 인간'이라고 했으며, 사회 곳곳에 이런 꿀벌형 사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옛 사람의 말이지만 오늘도 우리

문창선 칼럼



문창선 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꿀

벌형의 사람은 거미형이나 개미형의 사람보다 소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형의 사람일까? 혹 세 가지 형을 다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세 가지 형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듯합니다. 첫 두 형에서 벗어나 점점 꿀벌형으로 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컨의 세 가지 인간형을 놓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꿀벌형 사람

에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이완용 같은 사람) 또는 국제적으로(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이컨은 개미형의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수들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개미들의 '떼 공격'때문입니다. 베이컨은 거미형의 사람은 이기주의 인간이고, 개미형의 사람은 개인주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주의 사람들 다 바람직한 또는 성격이 말하

는 바른 인간은 아닙니다.

한방 칼럼



이명종 교수
LA 동국대 한의대학 재활학과

우리들의 목이 하루 종일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의 무게는 보통 5kg 내외인데 이는 사실 대단히 무거운 것으

로써 인체부위 중에서 그 단위 부피당 무게 즉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머리를 그저 지탱만 하는 것뿐 아니라 전후좌우 사방으로 계속 운동시켜야 하는 우리의 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매우 조

으로 받쳐주고 좌우로 돌려주거나 앞뒤로 조금씩 운동시켜 준다면 무척 편안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느낌은 바로 그 무거운 머리를 움직여주던 책임을 덜어낸 해방감에서 비롯된 것인데, 얼핏 상상하는 것보다

가장 주된 원인이 되지만, 이외에도 앞드려 자는 습관과 음주/흡연도 목 근육을 과민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X-ray 로 찍어보면 부드럽게 굽어있어야 할 목뼈들의 배열이 직선형의 경직

추간판(디스크)이 이탈되기 쉬워 소위 목 디스크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로 일정기간 치료합니다. 최근에는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치료법으로 척추의 배열을 교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오래된 목 강직 뿐 아니라 목 디스크 질환도 수술하지 않고 좋은 치료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치료법은 척추뼈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를 검사하여 가능한 한 정상위치에 근접하도록 교정하여 줌으로써 주위 근육과 신경조직이 눌리거나 비틀어지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 한 가지. 관절부위 특히 목이나 허리 또는 손가락을 스스로 꺾어 푹푹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운동을 하면 관절이 풀리고 개운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관절의 마모 즉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므로 결코 권장할 수 없으며, 일단 습관적이 된 후에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관절운동이 제한된 느낌 때문에 점점 더 큰 힘을 주게 되어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3~4주정도 이 습관을 중지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다른 약습관 고치기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인내력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뒷목이 뻣뻣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마한 부위에 불과합니다. 척추뼈 중에서 가장 작은 편인 목뼈 7개와 주위 근육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쉬 없이 전담해서 일하고 있는 형편이죠.

한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만약 누워있는 자세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머리를 두 손

도 훨씬 기분이 좋아지며 10초 정도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목부위 근육이 부드럽게 풀려 피로가 물러가고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들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목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운전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

된 상태로 나타나, 마치 부동자세로 서있는 위병소 헌병의 목을 연상시킵니다. 목이 뻣뻣하면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이 상태가 누적되면 두통, 안구피로, 시력저하, 집중곤란, 등결립 등의 증상이 같이 발생하기 쉽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 최학량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90710
Tel. 310-325-0501
예배시간 : 1, 2부예배(오전9, 오전11)



LA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김기섭

520 S. La Fayette Park #400, L.A., CA90057
Tel. 213-386-2233
예배시간 : 주일 1, 2, 3, 4부예배
(오전8시, 오전9시50분, 오전11시40분, 오후2시)

완연한 종교개혁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갈뱅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갈뱅이 교육받은 학교들

1529년의 갈뱅, 오를레앙에서 부르주(Bourges)로

중세 도시의 육중한 무게감을 느끼려면 부르주로 가야 한다. 1324년 5월 13일에 완공되었으며 순교자 스테반에게 헌정된, 118m 길이와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하는 부르주의 쌍 에피엔느 대성당(La cathedrale Saint-Etienne)을 바라보면 파리 노트담 성당은 웬지 왜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웅장함 앞에 초라한 자신을 경험할 것이다. 부르주는 오를레앙에서 130Km 떨어진 대학 도시며, 16세기 종교 개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산시킨 중심지이다. 부르주 대학은 나바르 왕국의 여왕 마흐규리트 드 나바르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곳은 이미 자크 큐자스(Jacques Cujas)와 같은 유명한 교수들이 머물렀고, 갈뱅의 교수인 불마가 마흐규리트의 초청을 받아 1529년 오를레앙에서 부르주 대학으로 옮겨 오자 갈뱅 역시 그를 따라 이곳으로 와 1529년에서 1531년까지 만 2년간 공부한다.

또한 갈뱅은 인문주의 정신으로 로마법을 가르치고 있던 이탈리아 출신 안드레아 알치아티(Andreas Alciati) 수하에서 공부를 하며, 1532년 1월 14일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다.

마흐규리트 여왕 자체가 인문주의자이며 위그노들을 보호 육성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초청한 교수들의 성향은 역시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불마와 알치아티는 진보적 종교사상을 가진 루터에 매우 심취한 사람들로, 갈뱅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개혁자로서

의 생각과 체제를 다지게 된다. 갈뱅은 불마에 대하여 좋은 추억을 간직하였고, 훗날 1546년에 고린도후서에 대한 주석을 그에게 헌정하였다.

개혁자로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던 갈뱅이 이곳에서 개혁자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아버지의 죽음이다.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주교와의 갈등으로 가톨릭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다. 아버지가

하여 오를레앙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얻게 된다(En 1531, il retourne a Orleans pour suivre des cours de theologie et obtenir le diplome de docteur en theologie) -L'Encyclopedie de Bourges에서 인용.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갈뱅의 목사 자격에 대하여 늘 시뮬터가 되었던, "정규 신학 수업을 받지 않았고 철학과 법학을 전공함으로 학업을 마

를 밝히 보았습니다. 내가 빠져 떨어진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한 나의 두려움과 떨리는 심정, 영원한 죽음의 절망에 대한 무서운 위협,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한 시간도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즉시로 나는 당시의 지시하시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통곡과 눈물로 나의 과거를 저주하면서 나는 떠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시점이 언제일까? 갈뱅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갈뱅의 생애를 제일 먼저 기록한 베즈(Beze)는 갈뱅이 1528년에 회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부르주에 도착하기 직전이거나 부르주에 머물고 있을 때이다. 본인도 베즈의 글에 동의하는 이유가, 갈뱅이 개혁을 외쳤고 그의 외침으로 순교자가 발생했던 부르주에서 정작 갈뱅 본인이 회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갈뱅과 같은 해에 소천한, 갈뱅의 스승이었던 마튀랭(Mathurin Cordier)도 1528년에 회심한다.

또한 갈뱅이 1532년에 출판한 '세네카의 관용론'을 보면 이미 그는 개혁자 입장에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관용론은 네로(Nero)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에 대하여, 학자로서 황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며 쓴 글이다. 그렇다면 갈뱅 역시 프랑수와 1세가 개혁주의자에 대해 탄압하는 것에 대해, 세네카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발간했을 것이다. 교회의 평화를 같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시 신앙을 위하여 순교하는 개혁자들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용감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더 이상 박해하지 말라는 글을 썼다고 한다. 부

르주에서 갈뱅의 행적을 살펴 보면, 이 책을 쓰기 전 이미 회심한 것이 확실하다. 개혁주의가 싹트고 있던 파리와 오를레앙, 그리고 마침내는 개혁주의의 열기로 들끓고 있던 부르주로 들어온 갈뱅은 이곳에서 개혁자로서의 생각과 모습을 갖추게 된다.

대학

대성당 아래쪽에 위치한 대학에 알치아티와 불마의 강의실이 있었다. 이곳의 법학부와 신학부는 많은 독일 학생들로 인해 루터교의 온상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개혁 사상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르주에는 여전히 갈뱅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갈뱅의 홀과 고크텐 광장과 그의 집

갈뱅은 13세기 말에 만들어진 1487년 화재로 심하게 파손된 어거스틴 파 수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수사학을 가르친다. 수도원 옆 '갈뱅의 홀'은 수도원의 식당일부를 개조하여 만든 것으로, 갈뱅이 사용했던 매우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강단이 있다. 지금은 건물 보존을 위해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길의 끝자리 고크텐 광장에는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해 놓고 물건을 팔기 위해 올라가 소리쳤던 큰 돌이 있는데, 지금은 이 돌을 '갈뱅의 돌'이라 부른다. 그것은 갈뱅이 이 돌 위에 서서 개혁의 필요성을 외쳤기 때문이다.

갈뱅은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었고, 당시 그가 살았던 집 뒤쪽으로는 개신교인들의 무덤으로 개혁주의

교수였던 아니에흐의 이름을 딴 아니에흐 공동묘지(Cimetiere d'Asnieres)가 위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갈뱅은 수도원이 있는 거리 25번지에 살았다"고 기록돼 있는 두꺼운 역사책을 들고, 그곳을 찾아 카메라를 메고 나섰다. 그날따라 비는 억수같이 퍼붓고... 책을 비에 젖은 땅에 떨어뜨리기를 여러 번... 25번지를 찾기 위해 거주자들에게 수 차례나 물었지 만 허탕이었다. 혹시나 해서 그곳 일대 사진을 다 찍어 두고 돌아왔다.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 23번지였다.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 본 뒤에 글을 써주었다면..... 참고로 프랑스는 길 한 쪽의 번지는 짝수이며 반대편은 홀수이다.

테오도르 드 베즈와의 만남

부르주에서 갈뱅은 또 한 번의 귀한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의 주인공은 그의 동역자이며, 후계자가 되는 테오도르 드 베즈(Theodore de Beze)이다. 파리로 상경하여 공부하고 있던 베즈는, 1428년 12월에 멜키오 불마의 수업을 받기 위해 오를레앙 불마 교수의 집에 머물다가, 불마 교수를 따라 부르주로 오게 된다. 불마의 제자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마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훗날 개혁자의 길을 함께 걷게 된다. 갈뱅은 이 우연한 만남으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오랜 동역자를 얻게 된다. 베즈는 불마의 집에서 1530년에서 1535년까지 공부한다. 그러나 1534년 프랑수와 1세가 개혁자들을 검거하라는 포고령을 내리자, 불마는 독일로 돌아가 튀빙겐 대학에서 법을 가르친다.



부르주 쌍 에티엔느 대성당. 가로수가 마치 작은 울타리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가톨릭 교회 신자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파문당한 채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갈뱅은 점차적으로 개혁자로 바뀌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갈뱅은 법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불마 교수의 제안으로 오를레앙에 가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기록을 발견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그것은 그가 오를레앙으로 간 이유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갈뱅은) 1531년에 신학 수업을 수강하기 위

했다"는 자격 시비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갈뱅의 회심

갈뱅은 추기경 사돌레(Sadolet)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회심에 관한 고백을 한다.

"나는 보았습니다. 마치 빛이 내 위에 막 쏟아져 비추는 것 같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오의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었는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웠는가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가장 귀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정신차려 성경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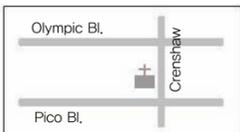
속독이 아닙니다. 정신차려 바르게 읽는 정독입니다.

1. 개인별 교육훈련(성경정독특별교육)

- (1) 장 소: 성경정독연구원(전화: 323-737-1445)
1171 s. crenshaw pl. L.A. CA 90019
- (2) 일 시: 매주 수, 목요일 오후 4시-8시
- (3) 대 상: 목회자, 사모, 장로, 권사, 신학생, 청년
- (4) 준비물: 생수1병, 성경, 찬송가, 봉헌
(총무:솔로몬 목사 (전화: 323-734-4271))



김정독 목사
성신중앙장로교회 시무
일심성경정독연구원장
성경보급선교회 회장
말씀목사 및 순회목사



2. 단체별 훈련 실시(교회별, 지방별, 노회별, 학교별)

- 교회훈련: 제직훈련, 교사훈련, 철야훈련(5시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짐이라 (딤후4:5)

성경정독연구원(진리학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126:5-6)

전화 (323)737-1445 H,P (323)388-7174 / 1612S. St. Andrews Pl. L.A. CA 90019

건강과 치료 (성경적 치유)

- 1. 당뇨병, 고혈압: 투병훈련 3-4일 만에 약 복용없이 정상수치가 됨
- 2. 관절염, 심장병, 알러지: 4-5일 만에 약 복용없이 증상이 사라짐
- 3. 간경화, 신장질환: 일주일만에 건강한 혈액을 모두가 확인하게 됨
- 4. 비만, 고 콜레스테롤: 4일째날 5-10파운드 감량됨
- 5. 갑상선, 전립선, 중풍, 자궁근종, 루퍼스: 근치법을 배움

빛 생수 소금 초식 과일 믿음

주님찬양교회 장로 임직식 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본교회 안수집사인 이용희집사의 장로 임직식이 2010년 3월 28일 오후1시에 본교회에서 거행됨을 공고합니다.

일 시: 서기 2010년 3월 28일 오후1시

장로 임직자: 이용희 안수집사

미국 예수교장로회 총회 주님찬양교회 담임목사 장춘근

주소: 2511 W. 3rd St., Los Angeles, CA 90057
전화: 310-940-0793, 310-940-164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라이머 생등심	프라이머 꽃살	오리고기
프라이머 갈비살	초이스 찜갈비	복염소
사브 사브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돈까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웨밀리 종합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들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Hankang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웨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 213-435-0608

반값으로 할 수 있다!

- 차바디수리 50% 절약 -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결혼꽃 전문

꽃어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자재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타주 이사 · 시내 이사 ·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www.HyundaiMoving.com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l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 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념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유,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윈도우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돌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엔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휘너, 삼성출판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 에어컨 1위

에어컨 23, 24, 25, 26, 27, 28, 30, 36, 42, 48, 54, 60, 72, 84, 96, 120, 150, 180, 240, 300, 360, 420, 480, 540, 600, 660, 720, 780, 840, 900, 960, 1020, 1080, 1140, 1200, 1260, 1320, 1380, 1440, 1500, 1560, 1620, 1680, 1740, 1800, 1860, 1920, 1980, 2040, 2100, 2160, 2220, 2280, 2340, 2400, 2460, 2520, 2580, 2640, 2700, 2760, 2820, 2880, 2940, 3000, 3060, 3120, 3180, 3240, 3300, 3360, 3420, 3480, 3540, 3600, 3660, 3720, 3780, 3840, 3900, 3960, 4020, 4080, 4140, 4200, 4260, 4320, 4380, 4440, 4500, 4560, 4620, 4680, 4740, 4800, 4860, 4920, 4980, 5040, 5100, 5160, 5220, 5280, 5340, 5400, 5460, 5520, 5580, 5640, 5700, 5760, 5820, 5880, 5940, 6000, 6060, 6120, 6180, 6240, 6300, 6360, 6420, 6480, 6540, 6600, 6660, 6720, 6780, 6840, 6900, 6960, 7020, 7080, 7140, 7200, 7260, 7320, 7380, 7440, 7500, 7560, 7620, 7680, 7740, 7800, 7860, 7920, 7980, 8040, 8100, 8160, 8220, 8280, 8340, 8400, 8460, 8520, 8580, 8640, 8700, 8760, 8820, 8880, 8940, 9000, 9060, 9120, 9180, 9240, 9300, 9360, 9420, 9480, 9540, 9600, 9660, 9720, 9780, 9840, 9900, 9960, 10020, 10080, 10140, 10200, 10260, 10320, 10380, 10440, 10500, 10560, 10620, 10680, 10740, 10800, 10860, 10920, 10980, 11040, 11100, 11160, 11220, 11280, 11340, 11400, 11460, 11520, 11580, 11640, 11700, 11760, 11820, 11880, 11940, 12000, 12060, 12120, 12180, 12240, 12300, 12360, 12420, 12480, 12540, 12600, 12660, 12720, 12780, 12840, 12900, 12960, 13020, 13080, 13140, 13200, 13260, 13320, 13380, 13440, 13500, 13560, 13620, 13680, 13740, 13800, 13860, 13920, 13980, 14040, 14100, 14160, 14220, 14280, 14340, 14400, 14460, 14520, 14580, 14640, 14700, 14760, 14820, 14880, 14940, 15000, 15060, 15120, 15180, 15240, 15300, 15360, 15420, 15480, 15540, 15600, 15660, 15720, 15780, 15840, 15900, 15960, 16020, 16080, 16140, 16200, 16260, 16320, 16380, 16440, 16500, 16560, 16620, 16680, 16740, 16800, 16860, 16920, 16980, 17040, 17100, 17160, 17220, 17280, 17340, 17400, 17460, 17520, 17580, 17640, 17700, 17760, 17820, 17880, 17940, 18000, 18060, 18120, 18180, 18240, 18300, 18360, 18420, 18480, 18540, 18600, 18660, 18720, 18780, 18840, 18900, 18960, 19020, 19080, 19140, 19200, 19260, 19320, 19380, 19440, 19500, 19560, 19620, 19680, 19740, 19800, 19860, 19920, 19980, 20040, 20100, 20160, 20220, 20280, 20340, 20400, 20460, 20520, 20580, 20640, 20700, 20760, 20820, 20880, 20940, 21000, 21060, 21120, 21180, 21240, 21300, 21360, 21420, 21480, 21540, 21600, 21660, 21720, 21780, 21840, 21900, 21960, 22020, 22080, 22140, 22200, 22260, 22320, 22380, 22440, 22500, 22560, 22620, 22680, 22740, 22800, 22860, 22920, 22980, 23040, 23100, 23160, 23220, 23280, 23340, 23400, 23460, 23520, 23580, 23640, 23700, 23760, 23820, 23880, 23940, 24000, 24060, 24120, 24180, 24240, 24300, 24360, 24420, 24480, 24540, 24600, 24660, 24720, 24780, 24840, 24900, 24960, 25020, 25080, 25140, 25200, 25260, 25320, 25380, 25440, 25500, 25560, 25620, 25680, 25740, 25800, 25860, 25920, 25980, 26040, 26100, 26160, 26220, 26280, 26340, 26400, 26460, 26520, 26580, 26640, 26700, 26760, 26820, 26880, 26940, 27000, 27060, 27120, 27180, 27240, 27300, 27360, 27420, 27480, 27540, 27600, 27660, 27720, 27780, 27840, 27900, 27960, 28020, 28080, 28140, 28200, 28260, 28320, 28380, 28440, 28500, 28560, 28620, 28680, 28740, 28800, 28860, 28920, 28980, 29040, 29100, 29160, 29220, 29280, 29340, 29400, 29460, 29520, 29580, 29640, 29700, 29760, 29820, 29880, 29940, 30000, 30060, 30120, 30180, 30240, 30300, 30360, 30420, 30480, 30540, 30600, 30660, 30720, 30780, 30840, 30900, 30960, 31020, 31080, 31140, 31200, 31260, 31320, 31380, 31440, 31500, 31560, 31620, 31680, 31740, 31800, 31860, 31920, 31980, 32040, 32100, 32160, 32220, 32280, 32340, 32400, 32460, 32520, 32580, 32640, 32700, 32760, 32820, 32880, 32940, 33000, 33060, 33120, 33180, 33240, 33300, 33360, 33420, 33480, 33540, 33600, 33660, 33720, 33780, 33840, 33900, 33960, 34020, 34080, 34140, 34200, 34260, 34320, 34380, 34440, 34500, 34560, 34620, 34680, 34740, 34800, 34860, 34920, 34980, 35040, 35100, 35160, 35220, 35280, 35340, 35400, 35460, 35520, 35580, 35640, 35700, 35760, 35820, 35880, 35940, 36000, 36060, 36120, 36180, 36240, 36300, 36360, 36420, 36480, 36540, 36600, 36660, 36720, 36780, 36840, 36900, 36960, 37020, 37080, 37140, 37200, 37260, 37320, 37380, 37440, 37500, 37560, 37620, 37680, 37740, 37800, 37860, 37920, 37980, 38040, 38100, 38160, 38220, 38280, 38340, 38400, 38460, 38520, 38580, 38640, 38700, 38760, 38820, 38880, 38940, 39000, 39060, 39120, 39180, 39240, 39300, 39360, 39420, 39480, 39540, 39600, 39660, 39720, 39780, 39840, 39900, 39960, 40020, 40080, 40140, 40200, 40260, 40320, 40380, 40440, 40500, 40560, 40620, 40680, 40740, 40800, 40860, 40920, 40980, 41040, 41100, 41160, 41220, 41280, 41340, 41400, 41460, 41520, 41580, 41640, 41700, 41760, 41820, 41880, 41940, 42000, 42060, 42120, 42180, 42240, 42300, 42360, 42420, 42480, 42540, 42600, 42660, 42720, 42780, 42840, 42900, 42960, 43020, 43080, 43140, 43200, 43260, 43320, 43380, 43440, 43500, 43560, 43620, 43680, 43740, 43800, 43860, 43920, 43980, 44040, 44100, 44160, 44220, 44280, 44340, 44400, 44460, 44520, 44580, 44640, 44700, 44760, 44820, 44880, 44940, 45000, 45060, 45120, 45180, 45240, 45300, 45360, 45420, 45480, 45540, 45600, 45660, 45720, 45780, 45840, 45900, 45960, 46020, 46080, 46140, 46200, 46260, 46320, 46380, 46440, 46500, 46560, 46620, 46680, 46740, 46800, 46860, 46920, 46980, 47040, 47100, 47160, 47220, 47280, 47340, 47400, 47460, 47520, 47580, 47640, 47700, 47760, 47820, 47880, 47940, 48000, 48060, 48120, 48180, 48240, 48300, 48360, 48420, 48480, 48540, 48600, 48660, 48720, 48780, 48840, 48900, 48960, 49020, 49080, 49140, 49200, 49260, 49320, 49380, 49440, 49500, 49560, 49620, 49680, 49740, 49800, 49860, 49920, 49980, 50040, 50100, 50160, 50220, 50280, 50340, 50400, 50460, 50520, 50580, 50640, 50700, 50760, 50820, 50880, 50940, 51000, 51060, 51120, 51180, 51240, 51300, 51360, 51420, 51480, 51540, 51600, 51660, 51720, 51780, 51840, 51900, 51960, 52020, 52080, 52140, 52200, 52260, 52320, 52380, 52440, 52500, 52560, 52620, 52680, 52740, 52800, 52860, 52920, 52980, 53040, 53100, 53160, 53220, 53280, 53340, 53400, 53460, 53520, 53580, 53640, 53700, 53760, 53820, 53880, 53940, 54000, 54060, 54120, 54180, 54240, 54300, 54360, 54420, 54480, 54540, 54600, 54660, 54720, 54780, 54840, 54900, 54960, 55020, 55080, 55140, 55200, 55260, 55320, 55380, 55440, 55500, 55560, 55620, 55680, 55740, 55800, 55860, 55920, 55980, 56040, 56100, 56160, 56220, 56280, 56340, 56400, 56460, 56520, 56580, 56640, 56700, 56760, 56820, 56880, 56940, 57000, 57060, 57120, 57180, 57240, 57300, 57360, 57420, 57480, 57540, 57600, 57660, 57720, 57780, 57840, 57900, 57960, 58020, 58080, 58140, 58200, 58260, 58320, 58380, 58440, 58500, 58560, 58620, 58680, 58740, 58800, 58860, 58920, 58980, 59040, 59100, 59160, 59220, 59280, 59340, 59400, 59460, 59520, 59580, 59640, 59700, 59760, 59820, 59880, 59940, 60000, 60060, 60120, 60180, 60240, 60300, 60360, 60420, 60480, 60540, 60600, 60660, 60720, 60780, 60840, 60900, 60960, 61020, 61080, 61140, 61200, 61260, 61320, 61380, 61440, 61500, 61560, 61620, 61680, 61740, 61800, 61860, 61920, 61980, 62040, 62100, 62160, 62220, 62280, 62340, 62400, 62460, 62520, 62580, 62640, 62700, 62760, 62820, 62880, 62940, 63000, 63060, 63120, 63180, 63240, 63300, 63360, 63420, 63480, 63540, 63600, 63660, 63720, 63780, 63840, 63900, 63960, 64020, 64080, 64140, 64200, 64260, 64320, 64380, 64440, 64500, 64560, 64620, 64680, 64740, 64800, 64860, 64920, 64980, 65040, 65100, 65160, 65220, 65280, 65340, 65400, 65460, 65520, 65580, 65640, 65700, 65760, 65820, 65880, 65940, 66000, 66060, 66120, 66180, 66240, 66300, 66360, 66420, 66480, 66540, 66600, 66660, 66720, 66780, 66840, 66900, 66960, 67020, 67080, 67140, 67200, 67260, 67320, 67380, 67440, 67500, 67560, 67620, 67680, 67740, 67800, 67860, 67920, 67980, 68040, 68100, 68160, 68220, 68280, 68340, 68400, 68460, 68520, 68580, 68640, 68700, 68760, 68820, 68880, 68940, 69000, 69060, 69120, 69180, 69240, 69300, 69360, 69420, 69480, 69540, 69600, 69660, 69720, 69780, 69840, 69900, 69960, 70020, 70080, 70140, 70200, 70260, 70320, 70380, 70440, 70500, 70560, 70620, 70680, 70740, 70800, 70860, 70920, 70980, 71040, 71100, 71160, 71220, 71280, 71340, 71400, 71460, 71520, 71580, 71640, 71700, 71760, 71820, 71880, 71940, 72000, 72060, 72120, 72180, 72240, 72300, 72360, 72420, 72480, 72540, 72600, 72660, 72720, 72780, 72840, 72900, 72960, 73020, 73080, 73140, 73200, 73260, 73320, 73380, 73440, 73500, 73560, 73620, 73680, 73740, 73800, 73860, 73920, 73980, 74040, 74100, 74160,

카메룬 위한 기도, 시애틀 13개 교회 모여



특별 찬양 시애틀 여성교회연합회

전세계 교회 여성들이 교파와 인종을 초월해 교회 일치와 평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예배가 지난 19일 뉴비전교회(담임 천우석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성희 전도사(한인 교회여성연합회 시애틀 지회장)의 인도로 참석자들이 카메룬 기독교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낭독하고 카메룬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카메룬 여성들은 “호흡이 있

는, 원치 않는 임신 등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세계 교회들의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헌신된 사역자 양성, 찬양과 예배의 부흥, 중보 기도의 활성화, 카메룬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이 이뤄지길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카메룬 여성들은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과 마음의 평화를 주시

는 장로교회, 뱀류감리교회, 시애틀 비전교회, 임마누엘교회, 뉴비전교회, 큰사랑교회, 인디안 선교교회, 옥버버장로교회 등 13개 교회가 함께해 연합의 의미를 더했다.

예배는 카메룬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한 데 이어 참석자들은 워싱턴 주 각 교회의 연합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한 후, 권혁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된 세계기도일은 현재 180개국에서 지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한국 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 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 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한국은 1930년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 “이기는 힘”,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주제로 기도문도 세 번이나 작성한 바 있다.

미주에서는 한인교회여성 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 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미주 70여개 지역, 500여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시애틀 지역 2010년 세계 기도일 예배

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기도문을 작성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도문을 낭독하며 카메룬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 상황을 나눌 수 있었다.

카메룬 여성들은 기도문을 통해 어린 소녀들의 대한 착취와 인신 매매 등이 근절될 것과 위장자들의 청렴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특히 카메룬 여성들은 기도문에서 ‘소녀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집안일을 도맡아하고 있고, 8살 된 어린 소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바나나 쥬스를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닌다.

또한 소녀들은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어린이 성매매 조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기도문을 작성해 기도문을 낭독하는 여성들과 듣는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날 설교를 맡은 천우석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 전했다.

세계 기도일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여성들이 연합하는 대표적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이번 예배에는 명성장로교회, 시애틀형제교회, 은혜장로교회, 시온장로교회, 시애틀한인장로교회, 시애틀연합

워싱턴주 각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일정 발표

워싱턴주 각 교회 협의회는 2010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일정을 발표하고 각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시애틀 지역은 오는 4월 4일(주일) 오후 4시 뉴비전교회(담임 천우석 목사)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며 설교는 시애틀 기독교회 연합회장인 장윤기 목사가 전한다. 연합예배는 본국 필그림 앙상블의 특별 연주가 있을 예정이다.

웨드럴웨이 교회 연합회 및 목사회(회장 원호 목사)가 주최하는 웨드럴웨이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내달 4일 오전 6시 웨드럴웨이 중앙장로교회(담임 조봉환 목사)에서 진행되며, 이날 설교는 전 회장이었



지난해 부활절 연합예배

던 손함모 목사가 전하게 된다. 타코마 기독교회 연합회(회장 유영식 목사)에서 준비하는 타코마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역시 부활절인 오는 4월 오전 6시에 새생명교회(담임 임규영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타코마 목사회장인 이동

기 목사가 전할 예정이다. 올림피아 지역은 오는 4월 오전 6시 올림피아 은광교회(담임 박용훈 목사)에서 열리며 설교는 올림피아 교회협의회장인 최윤현 목사가 전한다.

(김브라이언 기자)

제8회 2010 북가주남침례교회 연합성가합창제

제8회 2010 북가주남침례교회 연합 성가합창제가 북가주한인침례교회 협의회(회장 이동진 목사) 주최로 20일에 뉴비전교회(진재혁 목사)에서 열렸다. 합창제에 앞서, 이동진 목사 개회기도, 설교로 예배가 진행됐다. 이번 합창제에 뉴비전교회, 리치모드침례교회, 산호세한인침례교회, 이스트베이제일침례

교회, GGBTS 한인학생회 초청성가대, 뉴라이프교회, 새누리침례교회, 롱코드한인침례교회, 세계선교침례교회가 참여했다.

제9회 성가합창제는 리치모드침례교회(김경찬 목사) 주관으로 2011년 3월 5일에 뉴라이프교회(위성교 목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진 목사는 감사의 말을 통

해 “제8회 성가합창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 찬양은 생동하는 힘이 있어 죽어가는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찬양에는 기도응답, 회개와 용서, 병든 가슴을 찾아가는 능력이 있다. 자신도 살리지만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도 살리는 성령의 권능이 있다. 이번 성가대 찬양이 경제침체에 빠져있는 북가주 성도님들의 영혼들이 힘을 얻는 시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가합창제 헌금은 해마다 다 GGBTS신학대 장학금으로 지원한 관례에서 벗어나 아이티 지원에 전액 드러질 예정이다.

(임형진 기자)



합창제에서 공연하는 합창단

교회에도 계급이 있다?

미주 장신대 김인수 총장, 교회 개혁 초심 돌아가야

미주 장신대 김인수 총장은 지난 40회 KPCA 서북노회에서 장로교회의 역사와 교리에 대해 특강을 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직분을 계급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카톨릭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더욱 봉사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교회의 직분에는 높음과 낮

음이 있지 않고, 성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자녀라며 다른 것이 있다면 직책이 다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회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로마 교황청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직자들의 권위위식에 따른 부정과 부패, 교회의 재물 적체와 면죄부 판매 등이었는데 오늘날의 교회

가 이런 모습을 답습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교회 개혁의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어떤 행위와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며 “옛날 카톨릭과 같이 회개를 위해 고행을 하듯, 교회에서 구원과 회개를 위해 제한을 두거나 의의 공로를 쌓으려 하는 모습들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으며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협찬: 한국관광공사 특별후원: 기독교일보 아시아나항공

명품 건강검진

대한민국 일등 병원 '아산병원' 미주 일등 기독교신문 '기독교일보'와 함께 하는 미주 일등 관광 'LA아주관광'의 명품의료관광!

“백만불 대동령상 수상에 힘입은 아주관광이 준비한 또 하나의 특별한 기회! 한국 최고의 아산병원을 경험하는 명품의료관광의 기회를 놓치지하세요!”

- 1. 교민들을 위한 프리미엄 VIP의료서비스(미주교민 특별우대)**
전문의료진을 아주관광에 파견하여 무료 건강상담 및 건강 증진 센터 프로그램 수행 4명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상주 - 즉각적 대처 가능 - 검사다음날 결과확인 서비스 제공, 암 발전시 50%내 진료서비스 제공
- 2. 한국내 1위, 서울아산병원**
스페인 웨보 매트릭스 평가서 국내 병원 중 유일하게 세계 10대 병원 선정 (2009년 6월 17일)
- 3. '2009 글로벌 고객만족1위' 2년 연속 수상한 서울아산병원**
“환자중심의 관리중진 실현, 다양한 고객서비스 확충” 높은 평가 ‘의료의 집’ 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에서도 한발 앞서 일본능률협회인증, 102명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2009년 7월 29일)
- 4. 국내 의료계 최초 암센터 부문, 대한민국 명품 선정**
2009 The Proud 대한민국 명품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10대 암종에 암 수술 실적 1위 및 6개 암 환자 수술 최다 시행 병원

정밀검사:
흉부X선(전후, 측면), 중앙표지자(간암, 대장암, 담도암), 심전도, 복부초음파, 심전도, 복부초음파, 혈액정밀검사

공통검사:
[공통] 위내시경(수면), 대장내시경(수면), 흉부CT, 복부골반CT, 뇌MRA,
[남] 중앙표지자(전립선암), 전립선초음파, 심장운동부하, 심장초음파,
[여] 중앙표지자(난소암), 유방X선, 액상자궁경부암, 골반초음파/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흉추요추X선

기독교일보 - 안심 프로그램 남/여 \$3499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울아산병원 안심프로그램

혜택:
기독교일보 고객께만 주어지는 특별 혜택
1. 기독교일보 고객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프로그램(머리부터 발끝까지-안심프로그램)
2. 검진 다음날 서울 시내투어 무료 제공

미주교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특별 혜택
1.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검진 결과를 검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음
2. 이상소견 발생시 2~3일내로 전문의와의 면담이 주선했습니다(통상 1~3개월 소요)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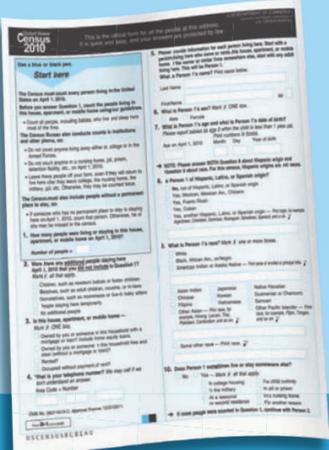
www.usajour.com

아주관광
1위

대표전화 (213)388-4000
서울 02-522-8686
1-800-933-3011

서울아산병원
아산병원 LA센터: 213-387-9090

우리의 10분, 교육환경과 취업기회 그리고 커뮤니티를 발전시킵니다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은 10분이면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으로 커뮤니티의 중대한 서비스와 개발을 위해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인구조사 양식을 기입해주세요.

- 인구조사는 법적으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은 물론,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 귀하의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지 않으신 분께는 정보수집을 위해 인구조사원이 자택으로 방문합니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1-866-955-2010으로 전화하시거나 2010census.gov로 방문해주세요.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세요.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북미주 **현대자동차** 딜러중 최대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STORE

푸엔테힐스 현대의 **차별화** 선언!



자체 용자 시스템 운영

혜택) 소셜 번호가 없으시거나, 있으셔도 크레딧이 없으신 분들 적은 돈으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자체 용자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 리스 및 원가세일 단행

혜택) 목회자이시면서 소셜이 없으신 분, 크레딧이 없으신 분과 나쁜신 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또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특별가격에 도와드립니다. (단, 목회자 증명서 필요)



북미 최대 단일현대 딜러

혜택) 총 부지 6,8에이커로 800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전시 판매할 수 있으며, 편안하고 품위있는 차량구입에서 정비, 바디샵과 사후 관리까지 최첨단의 시설로 원스탑 딜러로 고객만족을 위해 만전을 기함



고객을 우선시하는 딜러

혜택) 우리는 고객을 우선시하기에 아이들 놀이방 및 간식 제공, 서비스 대기시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차량 구입차 전원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세차 및 일정의 서비스 고객들께 평생 무료 오일체인지 등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한인 특별 용자 프로그램

혜택) 소셜 필요 없음, 크레딧 필요 없음, 나쁜 크레딧 OK, NO DOWN (단 방문 비자 제외)

상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월 한달 스페셜 세일!



2010 NEW SONATA GLS

SALE \$750 CASH BACK과 **0%** 특별이자

LEASE \$179 +Tax 36Mo/12K mile Drive off 1,499

(O.A.C)Model #26404 in stock only



2010 NEW ELANTRA GLS

SALE \$1500 CASH BACK과 **3.9%** 특별이자

LEASE \$159 +Tax 24Mo/12K mile Drive off 1,999

(O.A.C)Model #44414 in stock only

** 푸엔테힐스 바디샵 딜러 자체내 오픈 **

검증된 기술자 채용, 최첨단 도장 처리시설 완비, 무료견인 및 무료 견적, 신속하고 깔끔한 뒷처리,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 100% 소화

오픈 기념 행사

수리하시는 동안 무료 렌트해 드림, 무료 휠 얼라이먼트 해 드림, 3월 한달 방문하시거나 서비스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삼리 정
Fleet Manager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9:00pm
▶ 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 월-토 7:30am~6:00pm
▶ 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스티브 박 연디 김 스티브 박 지니 안

푸엔테힐스 현대

WWW.PHHYUNDAI.COM T.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t's the next
year you have your freedom, we'll let you return it.